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제173호 2020년 05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031-257-1841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

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24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

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어 11면, 베트남어 15면, 영어 3면>

송하성 기자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중국어(Chinese) 中文 6, 11, 27, 32, 47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11, 13, 15, 21, 30 일본어(Japanese) 日本語 35, 44 영어(English) 14 네팔어(Nepali) 네파리 25 필리핀어(Tagalog) 31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6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8, 13, 16, 18, 37, 48 동티모르어 39



정책 Policy 1, 3, 11, 15 교육 Education 23, 35, 37 생활정보 Information 20, 25, 33 육아 Child Care 31 인권 Human Rights 14, 22, 39 보건 Health 3, 6, 43 복지 Welfare 2, 4, 11, 17, 18, 19, 29, 32, 44, 47, 48 코로나19 Corona19 16, 21, 26, 32 법률상식 Legal Advice 13 기획 Project 45 인터뷰 Interview 12, 24, 34, 40 나의 학습 My Study 8, 30, 36 경제 Economy 5 도서관 Library 44 한국어 Korean 26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

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어 48면〉

이지은 기자

박옥분 여성가족위원장, 어린이집연합회 통합 축하 및 지원방안 논의

소통창구 이원화의 문제점 극복한 통합... 힘든 시기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 2, 더민주) 위원장은 13일(수)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통합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분리됨으로 인한 지원 및 소통창구 이원화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였고, 통합 운영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연합회가 뜻을 모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 11번의 회의를 통해 두 연합회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통합은 어린이집의 더 큰 발전을 소망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숙원이었다”라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통합에 이어 추후 시군 지회 통합이 도내 보육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도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합’의 아이콘으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발맞춰 걸어가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

기 위해 협심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시기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어린이집과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 온라인 2020.5.11.(일)부터 오프라인 2020.5.18.(일)부터
신청 방법: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출생년도 20일째 생식 적용 (온라인은 5.16부터 20일째 제외)
사용 만기: 2020.8.31.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 가능 신용, 체크카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주유소	음식점, 카페, 헛집 등	편의점	병원, 약국

가능한 곳에 더 많은 대상이 모여라...

사용 제한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통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금과금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 상거래 (PG업종)	대형전자 판매점	유출업종
발 ما시자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생인용품점, 출포류 판매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 공모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 (대체보험)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당사는 사용제한 업종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플랫폼(카드사별 앱/홈페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이주민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속속 개강

고양다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개강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온라인 한국어수업을 5월 11일부터 개강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2단계에서 4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별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총 교육시간 90시간 중 출석 및 평가기준 충족 시 이수증이 발급된다.

온라인 수업 첫날, 수업 도중 서버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수업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도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국어 수업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수강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은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수업에 참여한 오세옥 한국어강사는 “수업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테스트를 여러 차례 거친 것은 물론, 교육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수강생들의 한국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보람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법무부 사회통합온라인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온라인수업 개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은둔 환자 의료지원사업" 다문화가족도 덕양구 신청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가 '2020년 은둔 환자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이 KMI한국의학연구소·한국자원봉사 협의회·헬스경향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화상, 흉터,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지원자 중 중위소득 80% 이내,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자에 해당하며, 신청은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원 목록에 흉터 치료가 추가되고, 안질환이 제외됐으며 ▲노인성 치아 질환 ▲단순 충치 치료 ▲130kg 이상 고도비만은 신청이 불가하도록 변경됐다.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은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아 향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 Jae-myung Issues Emergency Administrative Order for Infection Tests and Interpersonal Contact Prohibition for Those Who Visited Itaewon Clubs

With the spread of the COVID-19 cluster infection centered on the Itaewon clubs in Yongsan-gu, Seoul,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has issued an emergency administrative order prohibiting interpersonal contact by and mandating infection tests for those who entered the related businesses. In addition, this administrative order prohibits gatherings at all clubs including bars, pubs and dance clubs in the province for two weeks.

During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held on May 10, Governor Lee Jae-myung said, "With the COVID-19 cluster infection spreading from the Itaewon clubs in Yongsan-gu, Seoul, Gyeonggi Province is implement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stop the infection from spreading, including the formation of an Immediate Response Team to conduct an in-dep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performance of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and the disinfection of related facilities."

Accordingly, Gyeonggi Province has ordered COVID-19 tests for and prohibited interpersonal contacts by those who visited the related sites, including the clubs and sleeping room located in

Gangnam-gu, Seoul, that were visited by COVID-19-infected individual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order are individuals who visited any of the 6 clubs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in Itaewon-dong, Yongsan-gu, Seoul, or the Black Sleeping Room after April 24 and who live, reside, work in or have other connections to Gyeonggi Province. These individuals must go to a clinic as soon as possible to receive a COVID-19 screening test.

The subject individuals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interpersonal contact during a period from the last day of entry at an affected site up to a maximum of two weeks until the individual is confirmed to be uninfected. In addition, if any person is deemed by quarantine authorities as having come in 'close contact' with an infected individual, they may be subject to a separate quarantine order.

Due to difficulties in specifying subjects of the order, Governor Lee explained that notic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is being made through press conferences, media reports, gubernatorial

and provincial SNS channels, and disaster text messages.

Anyone with an address, residence, workplace or other connections to Gyeonggi Province who has been to the Itaewon or Nonhyeon areas in Yongsan-gu, Seoul, since April 24, even if to places other than the related clubs and sleeping room, is eligible for free COVID-19 testing at community health centers and selected clinics in Gyeonggi Province from May 11 to 17.

Governor Lee said, "In this period, free examinations can be conducted without distinguishing visitors to the clubs or sleeping room in question from ordinary citizens." He added, "Please respond quickly to the call for COVID-19 testing before this period ends and abstain from interpersonal contact, considering that access to the clubs or sleeping room will be confirmed dur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ose infected for the first time."

Provincial authorities explained that they have created conditions in which sexual minorities can be examine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한글 기사 1면〉



고양시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다문화가정 어린이 위한 나눔 실천 이민자통합센터 문구 완구 등 전달

고양시는 지난 4일,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회장 김선미)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5백만 원 상당의 문구와 완구 등을 이민자통합센터(대표 김세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고양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이민자통합센터를 연계, 5월 가정의 달에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어린이날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부행사를 마련한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진은덕 사무국장(콩깍지 대표)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더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이고 어린이들에게 기쁜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 관내 여성기업인 CEO 회원으로 구성된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는 어린이날 기부를 비롯해 이웃돕기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봉사활동 등 지역봉사와 나눔 실천에 적극

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선미 회장은 “기업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나 여성의 세심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이민자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말했다.

이날 전달된 문구·완구는 이민자통합센터를 통해 고양시 관내 이민자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위탁기관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에만 28,000여 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마무리

다문화가족 1일부터 신청, 정부지원금 18일부터



고양시(시장 이재준)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자가 95만 명을 넘어섰다.

고양시에 따르면 5월 11일까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자는 95만 5,941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107만 명)의 89.1%이며 지급액은 478억 원이다.

성사2동, 화정2동, 행신1동 2동 3동, 풍산동, 마두1동 2동, 일산1동 2동 3동, 탄현동, 주엽1동 2동은 지급률이 90%를 훌쩍 넘었다.

지난 달 14일부터 전국 최초로 신청 즉시 받아 바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도입해 호평을 받은 고양시는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고 판단, 전담지급창구의 운영은 중단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직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7월 31일까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한발 빠르게 지급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으며, 고양시는 373 억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18일부터 지급한다.

이지은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양시는 100% 드립니다

4인가구 기준 약 정부 87만원, 고양시 13만원 분담

지원대상 고양시민 모두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가구별 지원금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사용처 경기도내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통업종 등)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 ※ 잔액 환불 불가

요일제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온라인만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지원금 신청 방법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충전

방식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선불카드 (통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1.(월) 07시~ ※ 5.16.부터 요일제 제외	5.18.(월) 09시~ ※ 토·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5.18.(월) 09시~ ※ 신청 시간 09시~18시 ※ 토·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접종 교부 기간 : 5.16.~ 6.18.
정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지급 (충전)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지급 (충전)	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통) 신청서 접수 ④ (통) 지급 (충전)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인(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찾아가는 신청			기 간 : 초기 일정 공지 대 상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 장애인 방 법 : ①전화상담, 확인 ⇒ ②방문, 접수 ⇒ ③지급(선불카드)
이의신청			신청기간 : 5.4.(월) 대 상 : 지원금 지급에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방 법 : ①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 후 의견 통보 ⇒ ④지원금 신청(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어판]

Perekonomian Republik Korea
(Dalam Bahasa Indonesia)

가. 대한민국 경제 개요

Ikhtisar Perekonomian Republik Korea

사실,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약 50여 년간 국제연합기구(UN) 등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한강의 기적’ 덕분에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원조가 필요 없는 나라로 인정하였고, 2009년에는 OECD에 설립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개발도상국 원조를 실행하는 국가로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Pada kenyataannya, sejak kemerdekaannya di tahun 1945, selama sekitar 50 tahun Republik Korea adalah negara yang mendapatkan dukungan secara ekonomi dari masyarakat dunia melalui PBB. Namun berkat “Keajaiban Sungai Han” pada tahun 1999 oleh OECD (Organisasi untuk Kerjasama Ekonomi dan Pembangunan) mengakui Korea sebagai negara yang tidak memerlukan bantuan lagi, dan pada tahun 2009 Korea mendaftarkan diri pada DAC (Komite

Bantuan Pembangunan) yang didirikan oleh OECD sebagai negara yang membantu negara berkembang. Dengan demikian Korea menjadi negara pertama di dunia yang beralih dari negara penerima bantuan menjadi negara pemberi bantuan.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국내 총생산(GDP), 1인당 소득 수준, 교역 규모,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의 경제 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rikutnya melalui tabel-tabel Produk Domestik Bruto (GDP), Pendapatan per kapita, Skala perdagangan, Rata-rata kenaikan harga barang, dan Pengangguran, akan terlihat situasi perekonomian Korea.

▶ 국내 총생산(GDP)

Produk Domestik Bruto (GDP)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에서 11번째로 큽니다. 1970년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세계 30위권 정도였지만, 1990년대부터는 꾸준히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enurut Dana Moneter Internasional (IMF) skala ekonomi Korea di tahun 2015 termasuk dalam 11 besar dunia sejumlah 1 triliun 435 miliar 1 ratus 1 juta dolar. Di tahun 1970-an skala

Produk Domestik Bruto Korea menduduki

peringkat ke 30, dan mulai tahun 1990-an terus meningkat memasuki jajaran peringkat 10 besar. Ini berarti bahwa perekonomian Korea telah mengambil peran yang sedemikian besarnya dalam perekonomian dunia.

▶ 1인당 소득수준

Pendapatan Perkapita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소득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은 288달러에 불과했으나, 40년이 지난 2007년에는 2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Pendapatan Bruto Nasional (GNI, Gross National Income) adalah standar pendapatan yang menunjukkan standar kehidupan rakyat. Di tahun 1970-an, pendapatan per kapita di Korea adalah 288 dolar, namun di tahun 2007 -yakni 40 tahun kemudian- mencapai 20,000 dolar lebih. Ini berarti bahwa standar kehidupan rakyat Korea meningkat pesat.

[참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

[Referensi] Produk Domestik Bruto dan Pendapatan Bruto Nasional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한 가치는 제외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이나 규모를 파악할 때 가장흔히 쓰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같은 국적의 국민 소득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지만,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제외됩니다.

Produk Domestik Bruto(Gross Domestic Product) mengacu pada nilai pasar dari semua produk akhir dan jasa yang dihasilkan dalam suatu negara selama periode tertentu.

Artinya jumlah nilai produknya termasuk produk yang dihasilkan oleh warga asing di Korea, tetapi nilai produk yang dihasilkan oleh warga Korea di luar negeri tidak termasuk dalam hitungan. Produk Domestik Bruto juga merupakan indikator paling umum yang digunakan untuk mengidentifikasi tingkat atau skala aktivitas ekonomi suatu negara.

Sebaliknya Pendapatan Nasional Bruto(Gross National Income) adalah total pendapatan seluruh warga negara Korea baik di dalam maupun di luar negeri, tidak termasuk pendapatan warga negara asing yang tinggal di Korea.

▶ 교역규모

Skala Perdagangan

교역규모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하여 측정한 교역의

크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과 시설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수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의 교역 규모는 80위권에 불과했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세계 6위(수출기준)의 교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Skala Perdagangan adalah volume perdagangan yang diperhitungkan dari jumlah ekspor dan impor. Karena kurang sumber daya dan fasilitas serta hanya memiliki pasar yang kecil maka sejak tahun 1960-an Korea berorientasi pada ekspor. Volume perdagangan pada tahun 1970 Republik Korea menduduki peringkat ke-80 dunia, dan pada semester pertama di tahun 2015, Republik Korea telah menjadi negara superpower dengan mencatat hasil perdagangan terbesar ke-6 dunia (standar eksport) di semester pertama tahun 2015.

▶ 물가 상승률

Kenaikan Harga Barang

물가 상승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물가지수가 증가한 비율을 말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0% 중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평균 6%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4% 미만으로 점차 안정되어 OECD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enaikan Harga Barang adalah persentasi naiknya indeks harga barang pada periode tertentu.

Sampai pada tahun 1970-an kenaikan indeks kenaikan harga barang di Korea per tahunnya lebih dari 15%. Namun memasuki tahun 1990-an, indeks kenaikan harga barang menurun hingga 6% per tahun, dan pada tahun 2000-an menjadi di bawah 4%, dan menjadi semakin stabil menjadikan Korea setara dengan negara-negara utama dalam OECD.

▶ 실업률

Tingkat Pengangguran

실업률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015년 3.6%로 OECD 국가 평균인 6.8%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고용지원제도 및 창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ingkat pengangguran berarti angka perbandingan terhadap mereka yang memiliki kemampuan untuk bekerja dan ingin bekerja tetapi tidak memiliki pekerjaan. Tingkat pengangguran di Korea pada tahun 2015 sangat rendah yakni 3.6% dibandingkan dengan tingkat pengangguran negara-negara OECD yang rata-rata adalah 6.8%. Pemerintah Korea menerapkan berbagai kebijakan untuk menyediakan lapangan kerja bagi rakyat melalui Sistem Jaminan Sosial, Sistem Dukungan Penyediaan Kerja, Sistem Dukungan Wirausaha, dan sebagainya.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대표 김지민, 이하 다청넷)가 5월 4일부터 고양시 거주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기업가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했고, 다청넷은 다문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병원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다청넷은 해외 관광객이 겪는 언어적 한계에 주목하고 다문화 청년의 이중 언어 구사능력에 초점을 맞춰 병원코디네이터 육성 과정을 구상했다. 다문화 청년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통역에서도 강점이 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다. 다

청넷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와 연계해 이론과 정과 병원실습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이론 강의와 병원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료기관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김지민 다청넷 대표는 "다청넷은 앞으로도 다문화 청년과 고양시 소재 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고양시 소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이 참여 가능하다. 이론 과정은 5월부터, 병원실습과정은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다청넷은 다문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고양시 청취다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전시민 고양시 자전거보험 정착 단계 자전거 사고 대비 다문화가족도 기억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시민 고양시 자전거보험' 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 자전거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고양시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도 보험금 지급건수는 313건, 지급액은 3억 8천 6백만 원으로 2018년도 지급건수 135건, 지급액 1억 2천 7백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9년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적이 미비한 부분의 보장금액은 내리고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책임보장 내용을 추가하면서 가입 초기에 비해 지금 건수 및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시는 현재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의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KB손해보험(02-6900-5103) 또는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이민자통합센터,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인성함양 세계시민교육 운영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다문화이해교육 학습지원, 세계시민 교육신청도 가능



이민자통합센터(대표 김세영)는 2020년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인성함양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 교육을 통해 도민강사를 양성, 온종일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다문화이해교육 학습지원을 한다.

지난 12일까지 신규강사 희망자를 모집한 이민자통합센터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양성과정을 실시한 후 수요처에 경기도민 다문화강사를 파견하게 되며 강사들은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18년부터 세계시민교육분야를 담당한 이민자통합센터는 경기도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30개 시, 군 14만3천9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실시해왔으며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강의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다 74.4%, 만족스럽다 23.1%, 불만족했다는 2.6%에 불과했다.

김세영 이민자통합센터장은 "학교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감수성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계시민교육은 문화와 의상, 주거환경 등을 전하는 다문화이해교육에서 아동·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기후, 환경, 인권등의 다양한 주제로 시민교육과 함께 다문화이해교육을 접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기존강사와 신규강사로 나뉘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기존강사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규강사는 경기도에서 양성한 후 파견하게 된다.

이민자통합센터는 신규강사 세계시민교육 분야를 위탁받아 양성과정을 실시하게 되며 고양, 남양주, 양평, 이천지역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사교육 후 발굴된 수요처로 다문화강사 활동을 파견하게 된다.

세계시민교육 신청은 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생활지원금 외국인 현장접수…문화섭 시장, 직접 신청 받아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 “외국인주민 소비촉진해 지역경제 보탬 되겠다”

문화섭 안산시장이 외국인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5월 11일 현장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찾았다.

문화섭 안산시장은 창구를 찾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은 일일 창구직원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안산시 생활비원금 외국인주민 전담 접수창구는 5월 10일 오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 마련되었다.

4월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외국인주민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으나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에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던 외

국인주민이 대거 현장접수로 몰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포함한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외국인주민 전담 접수창구가 운영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만 하루 동안 1천2백여명이 신청했다.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두 11개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작했으며, 중국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가능한 전담 상담사를 활용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주소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청하도록 조치해 편리성을 높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일일 근무를 한 5월 11일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전담 접수창구도 마련됐다.

칼리드오베드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준 안산시에 감사드린다”며 “단체 채팅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외국인 주민 모두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계 생활비 등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골목경제에 숨통이 트여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는 61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7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안산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인 173만5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최예지 기자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семья, «Кёнги молодёжь + 4 торговый менеджер» попробуйте испытать свои силы. Набор молодых людей, студентов иностранцев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тудентов до 5 июня.

Кёнгидо в целях обу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орговле, 29 числ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наборе (до 5 июня) на курс 2020 год «Кёнгидо молодёжь + 4 торговый менеджер».

Проект «Кёнги молодёжь + 4 торговый менеджер» создан в целях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и обеспеч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роект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выражения молодёжи по Кёнгидо +4 (подростки, студенты иностранц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и направлена решение обоюдного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усил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экспорта, создание действенного цикла рабочих мест, увеличение эффекта. Проект продвигается с 2016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стажё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обраны, составляет 100, и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около 30 студентов в 4 классах на 4 языках: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вьетнамский языки.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форме колект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он-лайн курса в течение 2 месяцев с июля по август. Место обучения будет выбрано, учитывая доступ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и соответствие окружающей атмосферы.

Стажёры,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 участ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орговле освоят навыки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торговли и такие как: контракты, платежи, интернет-маркетинг, стратегии делов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пециальные лек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и т.д. Студенты изучат прак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торговл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рактике.

Всем выпускникам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об окончании курса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Кёнгидо, а самые успешные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Выпускник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стажировка в компан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а так же они будут п

риглашены на маркетинговые проекты (G-FAIR,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экспорту и т.д.)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стимулирующего проекта «Кёнгидо молодёжь + 4 торговый менеджер»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действенного цикла, которая приведет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экспортной экономики, созданию рабочих мест и ожи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предоставляя отлич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экспортным компания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продвижению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оживающие по Кёнгидо, свободно владеющие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др.).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ки: загрузить и заполнить форму заявки на сайте рабочих мест «Job Abba» и до 5 июня подать заявку удобным способом (по эл.почте, по почте, или посетив фонд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36면>

안산화폐 '다온', 시민 관심 '폭증'

외국인주민에도 지급, 사용 더 늘 것 전망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되면서 다온카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용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사용액이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시민들이 안산화폐 다온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217억5천만 원에 달한다. 지난 1월 42억2천만 원, 2월 44억1천만 원, 3월 55억8천만 원으로 40억~50억 수준이었던 다온카드 사용액은 4월 한 달 동안 75억4천만 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다온 지급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혜택 이벤트가 오는 7월까지 연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된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1.6%(23억8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적은 20대가 23.9%(18억 원)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30대(20.4%·15억4천만 원), 50대(18.1%·13억7천만 원), 10·60대(6%·4억5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58%(44억여 원)로 남성보다 높았다.

주요 사용업종은 일반음식점(한식)이 14억7천만 원으로 19.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슈퍼마켓 17.1%(12억9천만 원), 편의점 4.5%(3억4천만 원) 등 순이었다.

안산시는 이달 초부터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다온카드 사용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산화폐 다온은 이달 11일 기준 모두 56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카드충전액은 411억 원에 달한다.

최예지 기자

외국인주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안내문

| 자급대상 2020. 4. 2.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안산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

| 자급액 1인당 7만원

| 신청방법 홈페이지[daon.ansan.go.kr]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방문신청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4. 20. ~ 7. 31.
방문신청 : 5. 11. ~ 7. 31.

방문신청 기간	신청대상	신청 및 카드 발급 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주말·휴일
		월	화	수	목	금	
5. 11. ~ 5. 17.	1인가구, 외국인	1, 6	2, 7	3, 8	4, 9	5, 0	전체
5. 18. ~ 7. 31.	전체(누구나)			요일제 미적용			

| 사용기간 3개월(사용개시문자 수신이후 / 단, 8월 31일 최종 마감)

| 사용처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
(단, 유통업소, 백화점, 유통업소, 대형마트, 영화관, 주유소, 금은방, 온라인 등 제외)

온라인 신청

| 본인신청

-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자 명의의 핸드폰 필수
- 대리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접수기간 : 4. 20. ~ 7. 31.
- 기존 다온카드 소유자는 포인트 충전 안내 문자 확인 후 사용 가능
- 신규 다온카드 발급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수령 후 사용



방문 신청

| 본인신청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등포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신청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등포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미확인시 접수 불가)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출신 국가별 가족관계 입증 서류(번역증명) 중 1개

| 유의사항

- 접수기간 : 5. 11. ~ 7. 31.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신청시간 : 평일 09:00~20:00
주말·휴일 09:00~18:00
- 단, 5. 18. 이후 행정복지센터 약간 주말접수는 미운영
- 방문 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과 함께 오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중국어 481-3500, 3501 / 러시아어 481-3502, 3503 / 영어 481-3504 / 베트남어 481-3505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주)판다그램, 취약계층 마스크 기증

안산제일복지재단 통해 취약계층 주민 전달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은 5월 4일 주식회사 판다그램으로부터 마스크를 기증받았다. 판다그램은 기증한 마스크를 노인, 장애우, 어린이,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기증 받은 마스크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등에 속한 외국인과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일노인요양원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판다그램은 캄보디아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우물 파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에

중장비 및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신형 컴퓨터 100대를 기증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스크를 지원받은 권순민 제일노인요양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의 이용자 및 직원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다.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판다그램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주민 후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착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예지 기자

검정고시 대비반 온라인수업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검정고시 등 대비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월 1일 밝혔다.

스마트교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운영 중인 검정고시 대비반이다.

온라인 수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욕구에 맞춰, 고졸 그룹 라이브강의는 카카오 라이브로 주5일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6과목을 시간표에 맞춰 하루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또 기초부터 수

강하기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멘토를 1:1로 매칭한 맞춤형 온라인수업도 지원중이다. 또 청소년들이 지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죽 카드지갑 및 테라리움 따라 만들기

▲컬러링북 색칠하기 프로그램 등의 해밀교실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 청소년과 교류하며 자립기술훈련과 문화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수업을 라이브 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지 기자



“BM산부인과에 대해 묻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어떻게 만났을까요?

An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BMC마음상담소 소장 문옥선

BM산부인과 BM의 뜻은 무엇인가요?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
2000년, 처음에는 산과(임신연관 질환) 진료가 많아 'Baby & Mother'로 이니셜 B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인과(여성 질환) 진료가 많아 'Beautiful Miz'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M산부인과는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꾸준하게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돋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0년 8월 안산에 산부인과를 개원하여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쯤, 시민적 어려움과 생겨 봉사단체를 찾게되었는데 단체증에서 토탈리봉사 '소아마비 봄맞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로인이라면 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회하였습니다.
저희 외삼촌 소아마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의 질, 배우자 선택의 기회, 직업을 맛어가는 무서운 전이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토탈리봉사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018~19년 안산지역에서 자궁경부암예방백신 프로젝트로 토탈리봉사프로그램 3천만 원 밖에 되었습니다.
수 많은 암 중에 유일하게 예방접종으로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자궁경부암인데요. 접종 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찾다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팀장님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그리고 난민 엄마와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 당사자를 만나면서 특별했던 사례가 있나요?

안산에 온 '후0도' 가족이 생각나요, 입국거부, 강제소환,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생활, 본국에서 여자로서 당했던 차별화된 이야기를 불편했던 이야기를 하며 많이 힘들어 했죠.
'후0도'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쉬기도 하고 입원에서 영양제도 맞았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또 마음은 한동안 펴어오르는데요.
국제구호단체 JTST으로부터 의료 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38세 난민 사례입니다.
이 분은 음식이 불편한 건강(은색각질의 빠른 번짐)으로 덜어있었는데 상처를 보니 안타깝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고맙게도 한의원 원장님께서 돌봐주고 계신데 호전이 되면 저희 병원에 의사 온열테라피(면역에 효과적)를 받고, 또 심해지면 다시 한의원 보내드리면서 돋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는 난민 가정의 보험료 감면을 통해 친로비 부담을 낮추려고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 활동내용, 의미는 무엇인가요?

6년전 '안산희망재단'이라는 단체에 활동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사랑이 커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역재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였지만 지역재단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직업을 통한 봉사가 제일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사업체의 사회공헌은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 무엇을 흰연 할 것인지 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곳 중에서 유일하게 의료를 하는 병원은 소비자로부터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에요. 또 의료 만큼 보람있는 봉사는 없을거에요.
직업을 통한 삶의 가치/실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해외봉사를 꿈꾸기도 하고, 이것을 의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안산에는 200개국이 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도 국제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국제 봉사지역이죠. ^^

앞으로 봉사활동 계획이 있나요?

BM산부인과에서는 매일 첫 번째 방문 친로비를 안산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이 300만원 달성을 되어 작은소원 공모사업 '소원을 말해봐'에 사용이 됩니다.
'소원을 말해봐'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사연을 듣고 선발하여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초등학년 5학년 학생이 치아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 후 웃음을 찾았습니다.
안산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많은 프로젝트 함께해요! ^.^

안산에서 BM산부인과가 20년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니며 여기 안산시에서 성장했어요.
한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을 도와준 마을(안산)에 사랑을 주고자 '안산희망재단'에 모금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산희초기부클럽 '1004클럽' 회원 10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4클럽 가입 조건은 생애 첫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됩니다.
'안산희망재단'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위축 된 지역경제의 소비진작과 취약계층을 돋기 위한 친환경·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천화재사 회생된 안산의 고려인 거장을 돋기 위한 긴급기록생제자원 등 안산의 민간기록재단으로 안산지역의 이슈에 기여하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희망재단으로 기부하신 재난기본소득 기금은 기부자님께서 사용되길 선택한 사업에 적립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지역의 고통과 차별을 극복하고 어려운 곳에 힘을 주는 사업에 전액 사용 할 예정입니다.

*재난기부소득기부의 약정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기부자 선택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기부, 행복한 안산' - 안산희망재단과 같은 인연을 이어가는 1004 기부클럽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OU 체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BM산부인과

업무 협약 (MOU) 체결

BM산부인과에서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난민 당사자 3명 (보이데라사, 아도) 중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는 난민 당사자의 보험료 감면을 통해 친로비 부담을 낮추려고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MOU 체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외 난민 당사자들을 도와주시는 대학입시, 단원방문, 한국사회의료기기협회, 안산빈센트의원, 안산근로복지공단, 학부산부인과, 영진산부인과 등 6개의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에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 초등학생 영어학습 워크북 제작 배포

안산시(시장 윤화섭) 화정영어마을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위해 'A for ANSAN 영어학습 워크북'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for ANSAN 영어학습 워크북'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의 학생들이 재미있게 알파벳을 익히고 쓰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워크북이다.

워크북은 안산화정영어마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읽으며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수업뿐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는 워크북과 함께 시에서 사용되는 5학년 교과서 6종을 분석해 각 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해 모아 놓은 '액티비티북'도 함께 배포, 등교개학 후 교실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진영 안산화정영어마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어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A for ANSAN 영어학습 워크북'은 교실에서, 가정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로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 재난지원금 전국 최고 수준, 4인 가족 173만5천원

안산시(시장 윤화섭) 시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받게 된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173만5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과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46만4천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한 액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금액은 국비·지방비(12.9%) 부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시민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실제 정부의 지급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지방비 부담을 제외한 87만1천원이다. 따라서 안산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6만4천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시를 포함한 10개 안팎의 자체만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은 기자



李在明,下达关于针对梨泰院夜店相关场所出入者感染检测•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 对有夜店、睡眠房以外的梨泰院、论岘洞访问史的京畿道民众实行新冠肺炎免费检测

针对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群聚感染事件,京畿道道知事李在明发布对相关场所出入者进行感染检测和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同时下达针对道内所有夜店等娱乐酒店和情感酒店、Colatec的禁止聚集命令。

10日,京畿道道知事李在明召开紧急记者会见时指出,“对于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疫情,京畿道即刻成立应对小组,进行深入的流行病学调查,对相关危险设施进行全数调查并进行消毒,竭尽全力切断感染扩散。”

同时,京畿道下达命令,优先对有确诊者出入夜店和首尔龙山区所在的睡眠房等相关娱乐场所访问史的相关人员,进行新冠肺炎感染检测并禁止其与他人接触。

命令对象为4月29日以后(包括29日)出入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的6家夜店KING CLUB、QUEEN、Trunk、THE FOUNTAIN、SOHO、H.I.M和江南区论岘洞的黑色睡眠房的人员当中,在京畿道居住、有居处、工作或因其他事由停留过的相关人员。上述人员应尽快到保健所接受新冠肺炎检测。对于禁止与他人接触的期限,为相关场所最后访问日的第二天开始,到两

周后确认未感染为止。除此之外,如果作为密切接触者被分流,则由防疫当局另行执行隔离命令。李在明知事指出,此次命令难以明确指定对象,则通过记者会见和舆论报道,京畿道道知事和京畿道各SNS公示、灾难信息发送等方式进行公告。

对于在京畿道内居住、有居处、工作或因其它事由在京畿道停留的相关人员,4月29日以来未访问过相关夜店或睡眠房,但去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和论岘洞一带的,于11日至17日期间在京畿道保健所和筛选诊疗所进行免费的新冠肺炎检测。

李在明知事强调,“这段时间即使未提及是否出入了相关夜店和睡眠房,也可同一般市民一样进行免费检测”,“之后若由自身原因引起感染扩散,在对最初感染者进行流行病学调查过程中,需参考是否出入过相关场所,则要求迅速响应感染检测并禁止与他人接触”。

李在明知事指出,京畿道此次措施未对性少数群体进行隐瞒,并为其创造检测条件,出台防止歧视性少数者的防疫办法。

对于该命令,根据传染病预防和管理相关法律,流行病

学调查(18条3款),健康诊断(46条),隔离及禁止接触他人(47条)等,若有违反可给予2年徒刑或罚款2千万韩元的处罚,并申请尤其承担因违反命令导致传染扩散的相关防疫费用。同时李在明知事命令,对于京畿道内所有娱乐场所(夜店、包间酒吧、Stand bar、夜总会、练歌房和练歌店等)5536家和情感酒店133家Colatec65家等共计5734家,自10日18时起至24日24时两周期间实行禁止聚集命令。

上述设施应即刻终止营业,如有违反,将按照传染病预防相关法律对营业者及使用者一律征收300万韩元以下罚款。李在明知事强调,“梨泰院一带出入者具有特殊性,在他们所属的公司、学校、军队、医院等发生二次感染的可能性很大。日后是否会再次发生第3次大规模集体感染,取决于我们是否能遵守日常性的防疫准则,这并非言过其实。”“再次希望大家以坚持个人防疫准则为基础,并积极配合防疫当局的防疫方针”。

另一方面,以10日12时为准,梨泰院夜店相关的京畿道确诊者,包括最初接触者共14名(龙仁3名、安养2名、城南3名、南杨州1名、高阳2名、富川1名、义王1名、水原1名),目前正在对密切接触者进行检测当中。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기자

Kinh phí hỗ trợ thiên tai của Chính phủ,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cũng được nhận

Tầng lớp có thu nhập thấp được nhận bắt đầu từ ngày 4, những người còn lại bắt đầu đăng ký từ ngày 11 và nhận vào ngày 13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hỗ trợ trước tiên cho 2,8 triệu hộ dân có thu nhập thấp bắt đầu từ ngày 4 tháng 5. Ngay sau đó, bao gồm cả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và người kết hôn nhưng chưa có quốc tịch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sẽ lần lượt được nhận số tiền hỗ trợ này. Theo đó, sẽ có 2,8 triệu hộ dân nằm trong diện có thu nhập thấp sẽ được nhận bằng tiền mặt, số người dân còn lại sẽ được đăng ký và được nhận bắt đầu từ ngày 13 nhưng sẽ không được nhận bằng tiền mặt.

-Cách thức và địa điểm đăng ký?

Các bạn có thể đăng ký cả hai cách là online hay offline. Nhưng nếu đăng ký online sẽ có thể nhanh chóng hơn. Đầu tiên các bạn phải lựa chọn và quyết định xem mình sẽ nhận số tiền hỗ trợ đó dưới dạng như thế nào. Người không thuộc diện có thu nhập thấp sẽ không được nhận số tiền này bằng tiền mặt mà phải qua một số các phương tiện như thẻ tín dụng, tiền tệ tiêu theo từng khu vực, thẻ check có tích điểm point, hay thẻ check do địa phương cấp. Nếu các bạn nhận tiền thông qua thẻ tín dụng hay thẻ check có tích điểm thì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5 tới đây có thể đăng ký thông qua công ty thẻ mà các bạn muốn được nhận. Điểm tích sẽ được cộng 2 ngày sau khi đăng ký. Ngày 13 tháng 5 là ngày được nhận số tiền hỗ trợ này một cách sớm nhất. Ngoài ra nếu các bạn nhận theo thẻ check hay tiền tệ sử dụng theo từng khu vực thì có thể đến trực tiếp ủy ban nhân dân để đăng ký. Thời gian đăng ký trực tiếp tại ủy ban nhân dân là từ ngày 18.

-Tôi muốn nhận thông qua thẻ tín dụng cũng như thẻ

check tích điểm nhưng lại không rõ về sử dụng mobile lăm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c bạn có thể đến trực tiếp ngân hàng giao dịch thẻ tín dụng hay thẻ check mà bạn muốn nhận. Thời gian bắt đầu đến ngân hàng đăng ký cũng là từ ngày 18 tháng 5.

-Tầng lớp cần được bảo vệ trong xã hội sẽ có thể được nhận sớm hơn?

Có đến 2,7 triệu hộ dân nằm trong diện này được nhận số tiền hỗ trợ mà không cần phải thông qua đăng ký. Số tiền này sẽ được trợ cấp bắt đầu từ ngày 4 tháng 5 thông qua số tài khoản mà họ đa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ừ phía nhà nước. Quận, huyện thị xã sẽ có thông báo gửi về sau khi đã tiến hàn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nhận được hay không?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ày. Không chỉ thế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định cư vĩnh viễn hiệ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cũng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trợ cấp. Nhưng các đối tượng là du học sinh v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sẽ khô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Gia đình chúng tôi gồm 4 thành viên và đang cư trú trên địa bàn tỉnh. Gia đình chúng tôi đã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800,000won và bây giờ có thể nhận thêm được hay không?

Tại tỉnh Gyeonggi, số tiền được trợ cấp được thay đổi lại là 870,000won mà không tính theo số thu nhập của gia đình. Theo như kế hoạch ban đầu,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kế hoạch trợ cấp cho người dân thuộc hai

thành phố là Suwon và Yongin là 1,8 triệu won nhưng số tiền nhận được cụ thể sẽ chỉ là 1,671,700, kế hoạch trợ cấp của thành phố Pojeon là 3 triệu nhưng được thay đổi lại là 2,871,700won và thành phố Euiwang từ 1,6 triệu won chuyển sang 1,471,700won. Đây là số tiền được tính theo tổng số tiền hỗ trợ của thành phố nơi các bạn đang sinh sống và của tỉnh Gyeonggi nói chung. Theo đó,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sống tại thành phố Yongin nếu trong tháng 4 đã nhận 800,000won thì sang tháng 5 này sẽ được nhận số tiền còn lại là 871,700won.

-Trong hộ khẩu thì tôi vẫn đang sống cùng với cha mẹ nhưng tôi đã đi làm, tự mình đóng riêng phí bảo hiểm và quản lý tiền thu nhập của mì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gia đình tôi là 2 thành viên hay 3 thành viên?

Bạn có thể truy cập vào trang web '긴급재난지원금.kr(Chi phí hỗ trợ thiên tai khẩn cấp)' để xác nhận lại số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mình. Theo dự định, web sẽ được cho vào hoạt động bắt đầu từ ngày 4 tới đây. Trong trang web này bạn chỉ có thể tìm kiếm được một số thông tin như phân loại hộ gia đình và số tiền được nhận hỗ trợ. Còn việc đăng ký nhận hỗ trợ thì phải đến trực tiếp các ngân hàng có giao dịch thẻ hay ủy ban nhân dân.

-Số tiền hỗ trợ này sẽ được trao cho thành viên nào trong gia đình?

Theo đúng quy định thì số tiền này sẽ được trao cho chủ hộ. Khi đăng ký tại công ty giao dịch thẻ thì phải sử dụng thẻ của chủ hộ để đăng ký. Nhưng nếu đăng ký tại ủy ban nhân dân thì có thể để người thân nhận giúp.

(한글 기사 32면)

강혜나 기자

“안산시, 2020 대한민국 다문화 포용 대표도시 선정됐다”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 선도정책 ‘인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2020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다문화 포용 도시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월 8일 안산시에 따르면 2006년 시작해 15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202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 등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다. 시상식은 5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는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를 소비자와 전문가 그룹 인증심사위원회 심층 심사를 거쳐 5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15개, 기업체 14개 등 모두

29개 대표 브랜드가 선정됐다. 다문화 포용 도시 대상 도시로 선정된 안산시는 올해 1~2월, 전국민대상 브랜드 인지도 조사(4만8천여명 참여)에서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마케팅 활동 ▲브랜드 선호도 등 4개 부문 평가에서 1위에 오르며 수도권 경합 도시와 창원, 순천, 아산 등 외국인주민이 많은 7개 도시를 따돌렸다.

안산시는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온 8만8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로, 외국인의 인권과 문화 다양성의 차이를 존중하며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창립을 주도해 지방정부 협치 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외국인 주민 전담 행정기관을 운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09년 정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받아 특화 서비스 제공과 밀집 거주지의 체계적인 관리, 이색적인 다문화 거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윤화섭 시장은 2018년부터 UN 아동 권리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에서 안산시

의 우수한 외국인 포용정책과 문화 다양성 증진 노력이 높게 평가돼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성과도 일궈냈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생활 안정지원금을 내국인(10만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7만원)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해 외국인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태국 결혼이민자인 메렐린 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의미가 크다”며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돈이 들어오면 먹을거리를 사서 가족과 함께 자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많은 분의 우려 속에서도 안산시에는 단 한명의 외국인주민 감염사례가 없다”며 “이는 외국인주민도 안산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반증된 결과로 모든 시민께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큰 상을 받게 돼 안산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2년까지 내외국인의 문화 상호 교류 공간인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문화 다양성을 안산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외국인과의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안산시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최예지 기자

인터뷰

BM산부인과 문옥선 이사장

“질병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마음까지 돌보는 병원이 되고 싶어”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BM산부인과는 올해로 개업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기간 안산에 자리를 잡고 의료 활동을 펼친 만큼, 문옥선 BM산부인과 이사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자리를 살피고 보듬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 안산시에 병원을 개원하고 경영에 참여한 문옥선 이사장은 2004년부터 로타리봉사단체에 입회하여 소아마비 박멸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2018년부터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안산지역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인연을 맺은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 여성 등 지역 내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안산시의 여러 복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난민의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옥선 BM산부인과 이사장은 “BM산부인과는 오랫동안 안산에서 일했다. 우리 병원이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분명 지역사회와 신뢰와 도움이 컸다. 받은 만큼 베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이기도 하다. 훗날 인생을 돌아볼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자유로웠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민할 것 같다”며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다면 무척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전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그에게 이처럼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우선해야 할 원칙은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며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들면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온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점에서 안산시는 이웃과 함께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다. 200여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국제봉사를 하겠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밖에 더 자세한 소식과 BM산부인과에서 펼치는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제작한 5월 이슈와 인물 카드뉴스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기사 10면 참조>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이주민 위한 교통사고 대처방법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길을 다니거나 차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신원, 가해차량,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메모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중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개호비,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액(일실수의), 위자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보험사 관계자와 협의서에 서명하고 일정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면 추후에 추가 손해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자는 반드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자, 운행금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상황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ách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i sinh sống ở Hàn Quốc, bạn có thể gặp phải tai nạn giao thông khi bạn đi bộ hay lái xe trên đường. Nếu bạn là nạn nhân của vụ tai nạn, bạn cần phải lưu lại danh tính của người đã gây tai nạn, phương tiện gây tai nạn và có đăng ký bảo hiểm hay không và ghi lại những điều đó. Và nếu bạn xin được xác nhận của người gây tai nạn là tốt nhất.

Nếu tai nạn nặng và bạn phải nằm viện hoặc phẫu thuật, thì bạn sẽ nhận được viện phí, chi phí phẫu thuật, bảo hiểm xe; đồng thời bạn cũng nhận được tiền trợ cấp thiệt hại trong quá trình bạn nằm viện, không đi làm được (mất thu nhập hàng ngày). Tuy nhiên, nếu bạn ký thỏa thuận với một công ty bảo hiểm khi bạn nhập viện và chỉ nhận được một số tiền nhất định, thì bạn nên tham khảo ý kiến chuyên gia pháp lý vì bạn không thể nhận được bồi thường bổ sung cho các thiệt hại trong tương lai.

Mặt khác, nếu bạn là người gây ra tai nạn, bạn có nghĩa vụ phải hành động để giúp đỡ nạn nhân sau vụ tai nạn giao thông. Nói cách khác, bạn nên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như cứu trợ thương vong và thông tin cá nhân của mình phải được cung cấp cho nạn nhân. Nếu vi phạm điều này và bỏ trốn, bạn sẽ phải chịu hình phạt

hình sự.

Ngoài ra, bạn nhất định phải đóng bảo hiểm cho người và xe. Nếu bạn không đăng ký bảo hiểm, bạn có thể bị xử phạt như bị giữ đăng ký biển số xe vĩnh viễn, cấm lái xe và phải đóng tiền phạt. Còn nếu bạn không đóng bảo hiểm, thì trong trường hợp bạn là người bị thiệt hại, dù là bạn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bị phạt nhưng vì không có bảo hiểm nên có thể bạn sẽ bị phạt.



Меры при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для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я в Корее иногда нельзя избежать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ки по дороге или езды на машине. Если вы стали жертвой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вы должны подтвердить и записать личность нарушителя, транс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на котором было совершено происшествие и провер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личии страховки. Ещё лучше, если вы получит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м происшествии от нарушителя.

В следствии тяжёлой аварии, в случае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назначении операции, страховая компания по страхованию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нарушителя оплачивает больничные расходы, расходы по уходу и возместит ущерб за потерю ежедневного дохода, а так же другого рода ущерб. Однако, если вы подпишите соглашение со страховой компанией во врем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только определённой суммы, вы не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будущие убытки. Поэтому перед подписанием договор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юристо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сли вы нарушитель, вы несёт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мочь пострадавшему посл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пострадавшей сторон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помочь пострадавшим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Если вы нарушите это и скроетесь с места преступления, вы будете подвергнуты уголовному наказанию.

Кроме того, водитель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должен быть застрахован от телесного 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ущерба. Если вы не застрахованы, вы можете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ы таким санкциям, как взимание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ного знака, запрет на эксплуатацию автомобильным средством,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ов, и санкций. Если во время вождения автомобиля без страховки были нанесены телесные или материальные повреждения, вы можете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ы уголовному наказанию, но даже если вы не подлежите уголовному наказанию из-за ДТП, вас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за отсутствие страховки.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aking Step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by Clients or Customers

- An employer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by clients or customers.**

Where any person closely related to duties, such as a client, causes a worker to feel sexual humiliation or repulsion by sexual words or actions dur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and such worker requests resolution of the grievance, his/her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his/her place of work, redeployment, or granting a paid leave of absence. (Article 14-2, subsection 1 of the Act)

- An employer may not take any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n employee who has become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No employer shall dismiss or take any other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 worker on account of his/her claim that he/she suffered harm caused by sexual harassment from a client, or refusal to submit

Duty of Employers to Take Measures When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Occurs

- Where an employer receives a report or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he/she shall immediately conduct an investigation to verify whether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In such cases, the employ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 worker who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lest he/she should feel sexual shame in the course of any investigation. (Article 14, subsection 2 of the Act)**
- Whe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 harassed worker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an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harassed worker works or issuing an order to have the harassed worker take a paid leave of absence. In such cases, no employer shall take measures against the wishes of the harassed worker. (Article 14, subsection 3 of the Act)**

- Where the investigation finds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the employ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upon the request of the harassed worker, such as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harassed worker works, redeployment, or issuing an order to have the harassed worker take a paid leave of absence. (Article 14, subsection 4 of the Act)

- Where the investigation finds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the employer shall immediately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the person who has committed sexual harassment at the workplace, such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or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perpetrator works. In such cases, the employer shall listen to the opinion of the harassed worker on measures such as disciplinary punishment before taking action. (Article 14, subsection 5 of the Act)

- No employer shall give a worker who reports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or a harassed worker any of the following disadvantageous treatments: (Article 14, subsection 6 of the Act)**

- Dismissal, removal from office, discharge or any other disadvantageous treatment corresponding to a loss of status;
- Inappropriate personnel actions such as disciplinary punishment, suspension from office, salary reduction, demotion, or restrictions on promotion;
- Failure to assign duties, reassignment of duties, or any other personnel actions against the wishes of the relevant person;
- Discrimination in performance evaluations or peer review, or differential payment of wages, bonuses, etc. following such discrimination;
- Restrictions on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skills;
- Engaging in any act that causes mental or physical harm, such as group bullying, assault or verbal abuse, or ignoring the occurrence of such an act;
- Any other disadvantageous treatment against the wishes of the worker who reports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or the harassed worker

- No person who investigates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ceives a report on the details of an investigation, or participates in investigating sexual harassment shall divulg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obtains in the course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to others against the wishes of a harassed worker. (Article 14, subsection 7 of the Act)**

Penalties for Viola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Laws

Prohibition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rticle 12)	No employer, superior, or worker shall commit any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gainst another worker.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rticle 39, subsection 1)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rticle 3, subsection 1)	The employer shall conduct preventive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very year.	NEW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rticle 39, subsection 2) * Previously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NEW Duty to post materials used in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Article 13, subsection 3)	An employer shall keep his/her workers posted on the detail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by always posting or making notices thereof available in conspicuous places where workers have ready access to them.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rticle 39, subsection 2)
NEW Duty to investigate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rticle 14, subsection 2)	Where an employer receives a report or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he/she shall immediately conduct an investigation to verify whether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In such cases, the employ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 worker who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lest he/she should feel sexual shame in the course of any investigation.	NEW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rticle 39, subsection 2)
NEW Duty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during an investigation (Article 14, subsection 3)	Whe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 harassed worker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an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harassed worker works or issuing an order to have the harassed worker take a paid leave of absence.	
NEW Duty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rticle 14, subsection 4)	Where the investigation finds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the employ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upon the request of the harassed worker, such as changing the place where the harassed worker works, redeployment, or issuing an order to have the harassed worker take a paid leave of absenc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rticle 39, subsection 2)

Employer Support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Materials on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are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Response manual
- Video on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Search for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at <http://www.moel.go.kr>)

- We provide free preventive education for sexual harassment instructors for businesses with 30 or fewer employees.

- A pool of instructors sourced from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t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and counselors at Employment Equality Counseling Centers has been formed to provide free seminars to businesses with 30 or fewer employe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 Public information → Other information → Frequently accessed materials → Search for “free instructor support”)





화랑유원지 자동차극장, 다문화가족 우선 입장

안산시 롯데시네마 등 민간 업체와 협력해 야외극장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서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안산시와 민간업체가 협업해 야외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첫 사례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운영으로 힐링 기회를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심 속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 가족단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관내 롯데시네마(안산고잔관, 안산관, 센트럴관)의 사업 제안으로 추진돼 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영화 상영에 필요한 재원은 롯데시네마, 농협중앙회안

산시지부, 한국전력안산지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한다. 관람료는 전액 무료이나, 자동차 입장대수 제한(100대)으로 안산시청 관광과(031-481-3059·2355)로 전화 또는 이메일(modeco80@korea.kr, hyo3424@korea.kr)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장기 기증(예정)자, 자원봉사 1천 시간 이상자는 사전 신청완료 및 자격 등 확인된 자에 한해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팝콘, 콜라 등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으나 '라스트오더' 앱을 활용해 선주문 후 극장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영화는 5월 한 달 간 매주 금·토요일에 상영된다. 오후 7시부터 입장이 시작된 이후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상영이 이뤄진다. 영화는 히트맨, 라라랜드, 액시트, 알라딘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상품기획 개발·판매 역량과 안산시가 협업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관광과(031-481-305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온라인 살구 엽서 보내기 3차 이벤트

안산시(시장 윤화섭) 자살예방센터는 5월 22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감소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코로나 블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3차 온라인 살구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살리고 구하는 안부엽서'라는 뜻을 가진 '살구엽서 보내기'는 지난해부터 관내 서점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손 글씨 안부전달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사소한 안부를 묻는 일상의 질문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엽서를 통해 직접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안산시는 지난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같은 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급감한 사회적 교류의 대안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반응이 좋았던 '살구엽서 보내기'를 온라인으로 확장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3차 온라인 살구엽서 보내기 캠페인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asspor.k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Chủ tịch tỉnh GyeongGi Lee Jae Myeong, Công bố lệnh hành chính khẩn cấp về việc nghiêm cấm tiếp xúc giữa người với người, yêu cầu kiểm tra nhiễm Corona hay không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ra vào club tại Itaewon

Giữa làn sóng Corona 19 bùng phát tại trung điểm là một Club tại Itaewon thuộc quận Yongsan thành phố Seoul, Lee Jae Myeong-Chủ tịch tỉnh GyeongGi đã ban bố lệnh hành chính khẩn cấp về việc nghiêm cấm tiếp xúc giữa người với người, yêu cầu kiểm tra nhiễm virus Corona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ra vào Club này. Song song với đó, Chủ tịch cũng đưa ra lệnh cấm hoạt động trong vòng 2 tuần đối với các địa điểm tụ tập vui chơi trên địa bàn tỉnh.

Ngày 10 vừa qua Chủ tịch Lee Jae Myeong đã mở một cuộc họp báo khẩn cấp, tại cuộc họp báo này ông cho biết rằng “Dựa theo diễn biến truyền nhiễm tập thể của virus Corona 19 gây ra tại Club Itaewon thuộc quận Yongsan thành phố Seoul, chúng tôi đang tiến hành cử một đội tiếp ứng ngay lập tức vào để điều tra tận trung những người có liên quan, ngoài ra chúng tôi còn chuẩn bị thêm một lực lượng điều tra có động lực học sâu nhằm mục đích ngăn chặn sự lây lan tập thể tại nơi này”.

Theo đó, tỉnh GeongGi đã đưa ra lệnh cấm tiếp xúc trực tiếp giữa người với người tại những khu vực như quận Gangnam thành phố Seoul, vv hay Club nơi mà có bệnh nhân nhiễm Corona 19 đã từng đi qua.

Bệnh nhân nhiễm virus là người đã lui tới 6 Club tại Itaewon-dong quận Yongsan thành phố Seoul bao gồm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và phòng ngủ đen nằm trên địa bàn Nonhyeon-dong quận Kangnam, người này có địa chỉ cư trú cũng như nơi làm việc đều thuộc tỉnh GyeongGi và ngày 24 tháng 4 vừa qua, Bệnh nhân phải đến ngay cơ sở y tế trong thời gian sớm nhất để được kiểm tra và điều trị nếu cần.

Lệnh nghiêm cấm tiếp xúc trực tiếp giữa người với người được áp dụng cho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lui tới các nơi vừa nêu trên bắt đầu từ ngày hôm sau cho đến khi nhận được thông báo rằng không bị nhiễm virus, thời gian đó là 2 tuần. Ngoài ra nếu như Bộ phán đoán rằng cần phải nghiêm cấm chặt chẽ việc tiếp xúc thì có thể đối tượng sẽ được đưa đi cách ly.

Chủ tịch còn cho biết rất khó để xác định được đối tượng trong lần nhiễm này do đó sẽ thông qua các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đại chúng để nắm bắt và thông báo thêm.

Trong số những người có địa chỉ nơi ở, nơi làm việc, vv thuộc tỉnh GyeongGi mặc dù không phải là đã từng ra vào tại các địa điểm cụ thể trên mà chỉ cần đi qua khu vực lân cận tại Itaewon quận Yongsan thành phố Seoul và Nonhyeon-dong quận Kangnam thành phố Seoul đều có thể đến bất kì trung tâm y tế kiểm dịch trên địa bàn tỉnh để kiểm tra nhiễm virus Corona 19 bắt đầu từ ngày 11 đến hết ngày 17.

Chủ tịch còn cho biết thêm “Trong khoảng thời gian

này việc kiểm tra nhiễm virus có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miễn phí và không công bố việc người đến kiểm tra đã từng ra vào phòng ngủ đen hay chưa” và “Để phòng trường hợp nhiễm virus từ chính bản thân của những người đó, chúng tôi sẽ đáp ứng nhanh nhất có thể trong việc kiểm tra lây nhiễm Corona 19 do đó chúng tôi hy vọng rằng người dân hãy tuân thủ những lệnh cấm mà chúng tôi đã đưa ra”.

Những người vi phạm lệnh cấm này sẽ có thể bị phạt tối đa 2 năm tù giam và 20 triệu won tiền phạt, ngoài ra nếu những người khác bị lây từ chính bản thân mình thì người đó sẽ có thể phải thanh toán toàn bộ những chi phí điều trị cho người bị lây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iều trị.

Tiếp theo đó Chủ tịch còn nghiêm cấm tập trung tập thể trên diện tích rộng, cụ thể như cấm tụ tập tại 5,536 địa điểm vui chơi giải trí như các quán Bar, Club, Stand Bar, vv 133 phòng trà và 65 quán rượu trong khoảng thời gian 2 tuần, bắt đầu từ 18h ngày 10 cho đến hết 24h ngày 24.

Các địa điểm nói trên phải dừng hoạt động ngay lập tức và có thể bị phạt dưới 3 triệu won cho cả chủ doanh nghiệp và người sử dụng nếu vi phạm một trong các quy định trên.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코로나19로 생활고 겪는 취약위기가족에 구호물품 전달해

시흥건가다가, 어린이날 피자 나눔 행사 등 취약계층 돌봄 총력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시흥시 취약·위기가족에게 '코로나19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긴급구호물품'은 쌀, 장류, 즉석식품과 기저귀, 물티슈와 같은 생필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후원물품을 구성했다.

강은이 센터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시흥시 가족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시흥시 가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가족(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과 다문화가족이 당당하고 힘 있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흥시 가족은 통합사례관리팀(070-4235-8262)으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어린이날 피자 나눔 행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지역 아동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피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에 진행된 이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의 각종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서 나눔 형태의 행사를 기획해 대응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시흥건가다가에서는 피자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결식아동 후원 단체인 '3사랑 밥터'의 지원을 기반으로 인근 군서초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진

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함께 안부를 나누는 등 참여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도 계속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집에만 있어 우울했는데 피자 받아서 신나요" "맛있는 피자, 집에 가서 가족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리에 함께한 부모 역시 "어린이날이어도 놀 러갈 수 없는 상황이라 미안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어 아이에게 선물이 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지 기자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не подвергаясь депортации, так же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ирус Корона19. Обнаружив признаки вируса Корона19 и посетив ближайшую поликлинику у они не будут подвергаться преследованию.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реагирования пр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заявило 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рейдов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легалов.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не опасаясь преследований и депортаци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тест на вирус Корона19.

Центр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еагирования пр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1 мая объявило о мерах по отношению примерно к 390.000 иностранцам, у которых истек срок визы легаль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с симптомами Corona19 не будут помещены в карантинную зону как «тихий переносчик».

На брифинге, состоящем в этот день, глав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кварти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заявил: "Лица у которых нет прописки, бездомные и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даже если имеют симптомы вируса, не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длежаще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в итоге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недоступной зоне". Нелегалы обратившие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или друго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и оставив там запись с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гут быть уверены что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при рейдах на выявление нелегалов, когда они снова возобновятс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92 по статье 2-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обязательном уведомлении. Данная стать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реступлени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легалам, которые став жертвой преступления, из-за боязни депортации, не обращаются за помощью в нужные органы. Согласно регламенту информация о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м иностранце, обнаружившем подозрения симптомов Корона19 и обративший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больницу, цент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ли друг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его ли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Кроме того,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реагирования во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объявил, что проведёт карантинную проверку рабочих мест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роинформируют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 необходимой проверке текущего состояния и условий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

й, а также соблюдения дистанции в обществе и соответствие с руководящими принципами.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районы которые плотно населены иностранц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 рабочие места.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тестированию и лечению Корона19 переведено на 16 языков.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мобильный центр для выездов в густонаселенные иностранцами район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лечения и проведения тестирования Корона19.

Поликлиники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персоналом колл-цен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нятости труда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венства семьи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устного перев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3 мая разослало гражданам экстр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о вышеуказанных мерах. Иностранца с симптомами, незаконно проживающим в стране,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по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у 1339 или в местный цент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портёр Цой Ечжи.

〈한글 기사 21면〉

장올가 기자

시흥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은 18일부터

다문화가족 포함 4인 가구 기준 87만1,000원 받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재정지원추진단도 구성했다.

시흥시는 5월 4일 관내 기초생활계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1만4,471가구에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5월 8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들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는 현금 형태로 계좌 송금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와 시흥시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선지급해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87만1,000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청 후 이를 내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 주 뒤인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5부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1·6번(월요일) △2·7번(화요일) △3·8번(수요일) △4·9번(목요일) △5·0번(금요일)으로 나눠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일요일은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토요일만 끝자리 상관없이 9시부터 17시 사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돋는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경기도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에 준용해 사용가능하고 시루로 받은 경우 시흥시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기한 동안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도 국고로 반납한다.

최예지 기자

등교 학교에 마스크 긴급 지원 1인당 7장씩 배부 총 40만여장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학생의 오프라인 개학에 대비해 관내 각급 학교 재학생 5만7484명에게 1인당 7장씩 총 40만2,400여장의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미 지난 4월 재학생의 등교 및 개학에 대비해 관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학교 현장에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1만3,000매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다 교육현장에서의 마스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재난기금 8억3,000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KF94 보건용마스크 28만7420장과 면마스크 11만4,968장(필터 각 10매씩 별도 지원)이다.

시흥시보건소와 시흥교육지원청과의 협조를 통해 관내 재학생의 개학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흥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을 꼼꼼히챙기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34.8만원 **2인 52.3만원** **3인 69.7만원** **4인 이상 87.1만원**

※ 경기도,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개인별 20만원씩 기 지급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 기간: 2020. 5. 4. (월) 09:00 ~

조회 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대주만 가능) → 조회

온라인 조회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5,1 일 6,2)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온라인/온장면)

02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온라인: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5,1 일 6,2 / 오프라인: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5,1 일 6,2)

온라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기간: 온라인 5.11.(월)~5.31(일)
오프라인 5.18.(월)~6.1(火) ※초후면 가능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5.18.(월)~6.18(火) ※초후면 가능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① 전화상담, 확인 → ② 조회 → ③ 방문, 접수 → ④ 지원금 신청

기타 안내 사항

■ 이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5.4.(월)~

■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② 증빙서류 제출 → ③ 검토 후 의견 통보 → ④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사용 안내
- 2020.8.31. 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시루가방점 상시모집 동 주민센터 신청 / 이메일·팩스 접수 가능 ※ 시루 홈페이지 참조 (www.si-ru.kr)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음악병상 간호사의 그림일기] 가천대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

대한민국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혼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이태원 집단 감염 여파로 학교 등교 시기 1주일씩 다시 연기

다문화가족 교육정보, 등교 시작 전 철저한 학교방역 체계 구축 나설 것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차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3 학생의 등교는 오는 5월 20일로 연기됐으며 5월 27일에는 고2, 중3, 초1~2, 유치원, 6월 3일에는 고1, 중2, 초3~4학년, 6월 8일에는 중1, 초5~6학년 등으로 등교가 연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등교수업 시기 방법(안)을 발표하면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월 11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파악한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 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감염병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6~8개 시도에 달해 감염증의 지역적 파급도 광범위하다.

등교개학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교육부는 더욱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 시작 이전까지 원격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4월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학교 구성원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방문 또는 접촉 사실을 숨기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5월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면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학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어 37면〉

자료 경기도교육청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гранты на случа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и иностранцы с ПМЖ также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гранты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начиная с 4 мая будут выплачены 2,8 млн. семьям с минимальным доходом. Дале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включа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МЖ.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мерно 4,8 млн. семей с минимальным доходом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грант наличными деньгами с 4-го числа, остальные семьи, которым грант выплатят не наличными деньгам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ы уже с 13 мая.

-Когда и гд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Заявку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как онлайн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та и офлайн. Быстрее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Сначала вы должны решить в каком эквиваленте вы хотели полу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рант на случа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емья, которые не являются уязвимыми, могут выбирать из 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кредитные и чековые карты,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купоны или на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распространяемые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накредитные и чековые карты,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заявку с 11 мая на сайте фирмы. Начисление произойдет через 2 дня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13 мая - самая ранняя из дат.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на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или местными подарочными сертификатами,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на месте, обратившись в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рай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Заявки в центрах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с 18 мая.

[-Я хочу получить на кредитную или чековую карты, но я не знако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сетив банк, к которой прикреплена карт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сетив банк так же можно с 18 мая.

-Уязвимые семь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ыстрее?

Семьям получающим основное пособие по существованию, базовую пенсию, и пенсию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Таким семьям (2,7 миллиона се-

мей) с 4 мая выплаты производятся наличными на счет, на который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собие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Местные управлении планируют осведомить данные семьи о том, что средства были выплачены.

-Могут л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Да.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базовым пособием по Кёнгид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и иностранцы с ПМЖ так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Однако, к сожалению,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не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ки.

[-Семья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ая в Кёнгидо. Наша семья получила 800.000 вон, положено ли нам снова получить пособие?](#)

В Кёнгидо все семь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оход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рант помощи при бедствиях, сумма которого была изменена до 870.000 вон.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емьям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в городах Сувон и Ёнгин платировалось выплатить 1,8 миллиона вон, но сумма была изменена до 1,671,700 вон; по плану платежи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 составляли 3 миллиона вон, но сумма реальных выплат составила 2,871,700 вон; в городе Ыйванг сумму выплаты изменилась до 1,600,000 вон, а затем до 1,471,700 вон. Эта сумм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уммированную сум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фондов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базовых доходов от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и фондов помощи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основного ме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котором они живут. Следовательно, если семья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ая в городе Ёнгин, получила 800,000 вон в апреле, то остальные 871,700 вон семья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мае.

[-По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я прописан с родителями, но я устроился на работу и управляю деньгами отдельно, также я оплачива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зносы \(мед., пенсион. счет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ы относимся к семье из 2 или 3 человек?](#)

Вы можете проверить это на сайте «Экстренная поддер-

жка в период бедствий» '긴급재난지원금.kr'. Сайт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4-го числа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и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запросы. На данном сайте 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только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семей и запрос о суммах. Заявки на гранты должны быть поданы в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ие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в банке или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местных управлений.

-Кто из членов семьи получит грант?

В принципе, грант выплачивается главе семьи. При обращении в компанию, обслуживающую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вы должны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с указанием главы семьи. Тем не менее, посетив объект, такое как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заявку по доверенности.

[-Вероятно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ителей онлайн внезапно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пособа выплат, день подачи заявок и получение всех средств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р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зависит от дня недел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ечной цифрой года рождения, так же, как при покупке масок в аптеках «Подсистема Маска 5» в начале реализации.

Однако онлайн-заявки с 16-го числа на кредитные и чековые карты отменяются. Система дней недели также относится к сайту, который открывается с 4 числа, справочной службы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на которую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ерить состав семьи и положенную сумму пособия.

-Что если заявка не будет подана?

Согласн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принятому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если вы не подадите заявление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с даты начал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умма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пожертвованием и поступит в Фонд страхо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한글 기사 32면〉

장을 가 기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3차례 모집, 연간 120만원 복지 포인트 만 18~34세 노동자인 다문화가족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월 급여가 26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만 신청할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총 1만700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번 1차 모집에 7000명, 2차와 3차에 각 5000명씩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선정된 대상자는 약 40만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이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끝났으며, 2차 모집 기간은 8월 1일부터 17일, 3차 기간은 11월 1일부터 1일 까지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29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 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의 여유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7000명 모집에 총 4만2248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의 훌륭한 청년근로자 정책인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모집대상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 주 36시간 이상, 90일 이상 근무
- 건강보험료 2개월 평균 86,710원 이하 납부

참여혜택

1년간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1. 언제?

- 연간 총 4회 분할지급
- 3개월마다 자격 검증 후 복지포인트 지급

2. 어디서?

- 경기청년몰에서만 사용 가능

3. 어떻게?

-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이용권 구매 가능
-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결제

※ 다른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1577-0014

모집인원

연간 총 17,000명
1차 모집 7,000명

신청기간

- 1차 05.01.(금) ~ 05.15.(금)
- 2차 08.01.(토) ~ 08.17.(월)
- 3차 11.01.(일) ~ 11.16.(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www.jobaba.net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확인서 등

행정안전부
코로나19에 지원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ph.go.kr/gjzj/gjzj_main.jsp

가구당 금액	가구당 인원
40만원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80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이상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암자 개념 적용
*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0.5.11.(월) 07:00 ~

세대주에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오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 1,6 2,7 수 3,8 목 4,9 금 5,0 토 모두

온라인 신청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 신청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입출,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편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Nais kong maging isang ina" Edukasyon upang maiwasan ang hindi pagbubuntis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16)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agiging magulang, Bagong kasal, Mga kababaihan na nais magkaanak, Mag asawa na hindi magkaanak.
- Nilalaman ng Suporta**
 - Araw at Oras : Abril (2beses), Oktubre(2 beses)
 - Lugar : Jeongwang Health Center Health Education Room (2F)
 - Nilalaman : Pagsusuri para sa malusog na pagbubuntis, Panganganagan sa kalusugan bago ang nakatakdang pagbubuntis, Edukasyon upang maiwasan ang hindi pagbubuntis
 - Paraan ng Paggamit : Paunang pagpapareserba (hindi hihihit sa 30 tao)

"Klinika ng pag papasuso" 119 Siheung Breastfeeding

Health Policy Division, Regional Health Team(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kababaihan sa Siheung City na nasa ika-20 linggo ng pagbubuntis, Buntis at ngapapaso
- Detalye ng Operasyon**

Buntis	Paraan ng panganganagan sa suso sa panahon ng pagbubuntis, pagtuturo sa pagpapaso, indibidwal na pagsusuri sa suso at pagtuturo sa pagpapaso
Ngapapaso	Tamat pustura ng pagpapaso, pagpapayo sa mga may kakulangan sa gatas, Pamamahala sa problema sa dibdib at utong
- Araw at Oras**

Siheung Health Care Center	Mula ikalawa at ikaapat na Huwebes ng Marso 2019 10:00am~12:00nn
Jeongwang Health Care Center	Mula ikalawa at ikaapat na Martes ng Pebrero 2019 10:00am~12:00nn

*Kinakailangan ang pagpapareserba sa pamamagitan ng paqtawag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Suporta para sa may congenital metabolic abnormalities

Siheung Health Center(031-310-5838)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38)

- Mga Maaring Magparehistro :** Lahat ng Ipininanganan sa nasasakupan (Neonatal screening sa loob ng 3~7 araw pagkatapos ng kapanganakan)
- Nilalaman ng Suporta**
 - (Mga item sa inspeksyon) Ang mga batang may phenylketonuria, hypothyroidism, homocystinuria, Maple Syrup Urine Disease (MSUD), galactosemia,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 (bayad sa pa unang inspeksyon) humigit kumulang na 22,000~41,000won personal na pagbabayad (Maaprobahan lamang kung ma inspeksyon sa hanggang 6 na buwan)
 - Ang pangalawang inspeksyon ay nakumpirma na ang bata ay may roong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ang bayad sa pag susuri ay aangkinin ng pampublikong kalusugan nag kakalagang 70,000won
- Mga Kailangang Dokumento**
 - Registration form
 - Resibo ng gastos medikal
 - Nilalaman ng Medikal na pagsusuri (Naka sulat ang Halaga)
 - Kopya ng Passbook
 - Sa kaso ng kahilingan para sa bayad sa pagkumpirma sa pagkumpirma, ipasa ang medical certificate (Ipasa sa loob ng isang taon mula sa petsa ng kapanganakan)

Suporta National Happiness Car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ustomer Service Center (129)
Social Service Call Center (May bayad) 1566-3232

- Mga Maaring Magparehistro :** Pagpapasa ng pregnancy confirmation certificate na dependent o miyembro ng Local Health Insurance na buntis
- Mga Suporta**
 - Mga naka-sponsor na katibayang patooto ng estado upang masakop ang mga gastos sa pagbubuntis
 - Suporta para sa pagbubuntis at panganganagan na medikal na gastos para sa mga batang ina (Ang mga 18 taong gulang pababa ay makakatanggap ng suportang 1,200,000won pababa sa bawat pagbubuntis)
 - Medikal na suporta sa panganganagan at Health Insurance para sa mga buntis
 - Suporta sa ina at bagong panganganagan na panganganagan sa kalusug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Magparehistro sa National Happiness Card Company (BC Card, Lotte Card, Samsung Card)

Suporta para sa mga sanggol na premature at may congenital abnormalities

Siheung Health Center (031-310-5838)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pamilya na may premature na sanggol na may pamantayang kita 180% o mas mababa pa.
 - Ikalawa o ang mga kasunod na mga anak ay premature o may congenital abnormalities (bibigyan ng suporta anuman ang antas ng kita)
- Nilalaman ng Suporta**
 - Hinikayat ang mga premature o may congenital abnormalities na sanggol na makatanggap ng naaangkop na panganganagan medikal
 - Pamamahala ng pagpaparehistro sa mga premature at may congenital abnormalities na sanggol.
 - Ang pagkakaiba-iba ng suporta batay sa antas ng kita
- Paraan ng Pagpaparehistro :** Dala ang mga dokumento mag-apply sa health center na pinag-arehistruhan ng sanggol sa loob ng 6 na buwan mula sa petsa ng paglabas sa hospital.
- Mga Kailangang Dokumento**
 - Registration form para sa support sa gastos sa premature at may congenital abnormalities na sanggol (makukuha sa health center)
 - 1 orihinal na resibo para sa mga gastos medikal at isang kopya ng mga detalye ng gastos medikal
 - 1 kopya ng bankbook
 - 1 kopya ng birth certificate
 - 1 kopya ng orihinal na medical certificate na naglalaman ng pangalan ng sakit (dapat ipasa kahit para sa premature na sanggol)
 - Kung ang address ng rehistrasyon ng mag-asawa ay magkakaiba, magpasa ng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ng mag-asawa (Kung sakaling hindi makakasama kinakailangan ng stamp (※Sistemang reserbasyon 100%)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Pamamahala ng mga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Siheung Health Center(031-310-5838)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38)

- Mga Maaring Magparehistro**
 - Pagsusuri ng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 Ang mga pasyente na wala pang 19 taong gulang na itinuturing na nangangailangan ng tulong medikal tulad ng espesyal na formula ng gatas
- Nilalaman ng Suporta**

Especyal na formula ng gatas, suporta sa mababang protina sa pagkain	Medikal na suporta (kabilang ang mga gastos sa gam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porta para sa mga pasyente na may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tulad ng phenylketonuria, na nangangailangan ng espesyal na formula at mga pagkaing mababa sa protina Bawat sanggol ay magkakaiba ang katangian at dami ng kinokonsumo kaya nararapat na sumangguri sa dok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g mga pasyente na may congenital hypothyroidism: Ang halaga na hanggang 276,000won para sa gamutang medikal sa kasalukuyang taon (kabilang ang hindi bayad sa nakaraang taon) Maaaring magparehistro health center sa oras na masun na may congenital metabolic abnormality at(aplikasyon para sa suporta). Especyal na diet support sa mga batang my hindi pangkaraniwang karamdaman kagaya ng Crohn's disease at Short Bowel Syndrome
- Mga kailangang Dokumento**
 - Registration Form
 - Medical Certificate
 - Orihinal na resibo (Resibo ng mga gastos sa medikal sa loob ng isang taon mula sa petsa ng aplikasyon)
 - Kopya ng bankbook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kung magkakaiba ang address ng mag-asawa).

Pagrenta ng pump para sa suso

Siheung City Health Center (031-310-5837)
Jeongwang Community Health Center(031-310-5941)

- Maaring Mag Magparehistro :** Mga nanganak ng butis sa Siheung City(※100% ng reserbasyon)
- Panahon ng Paggamit :** Magagamit ang nirentahang pump sa loob ng 2 linggo mula sa petsa ng aplikasyon (maaaring muling magparehistro para sa karagdagang extension. Kung sakaling walang kasunod na nakrehistro maaaring maaprubahan kaagad matapos ang konsultasyon.)

Pagbubuntis · Panganganagan

10 11

미등록외국인도 강제출국 없이 코로나 검사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역 보건소 방문해도 단속 안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등록외국인이 단속 및 강제 출국 조치, 검사 비용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제대본 회의를 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공직자들〉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비자 만료 등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상실했으리라 예상되는 외국인 39만여명에 대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미등록외국인이 ‘조용한 전파자’로서 방역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 등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다”며 “(미등록외국인 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남는 기록을 수집하지 않고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이 정보를 이용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규정에 근거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다. 미등록외국인이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외국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국민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는 유증상자 업무 배제 및 검사 필요성이 안내된다. 이를 사업장을 포함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필요시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속 콜센터 인력이 투입되어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국민들에게 보냈으며 증상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화 1339나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베트남어 21면, 태국어 26면, 러시아어 아래〉

최예지 기자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3개월 생계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돋기 위해 전월 대비 매출액 기준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 업무지침상 휴·폐업 사업주가 긴급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공급 가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월 대비 2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02천원), 재산은 일반재산 약 1억 6천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31-310-4311

최예지 기자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đăng ký thẻ cư trú cũng được xét nghiệm Corona 19 miễn phí mà không bị cưỡng chế xuất cảnh Khi có triệu chứng nghi ngờ bị nhiễm Corona 19, dù bạn có đến cơ sở y tế của khu vực để kiểm tra, thì cũng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bị bắt giữ

Trung tâm ứng phó thiên tai đã phát biểu rằng sẽ hoãn lại việc cưỡng chế đòn áp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đăng ký thẻ cư trú tại Hàn Quốc, giúp họ không cần phải lo lắng về các vấn đề như bị cưỡng chế xuất cảnh hay chi phí điều trị, vv mà hoàn toàn có thể yên tâm điều trị nếu bị nhiễm Corona 19

Ngày 1 tháng 5 vừa qua, Trung tâm ứng phó thiên tai đã công bố các biện pháp để tránh việc 390.000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mất tư cách do hết hạn cư trú trong thời gian này.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đăng ký thẻ cư trú tại Hàn Quốc mà có các triệu chứng nghi ngờ nhiễm virus Corona 19, họ sẽ bị coi như là người gây ra sự truyền nhiễm một cách thầm lặng nên sẽ có những biện pháp xử lý kịp thời.

Trong cuộc họp giao ban ngày hôm

đó, Kim Gang Rip, Giám đốc Trung tâm ứng phó an toàn thiên tai đã phát biểu rằng “Hiện tại vẫn còn những điểm mù, ở chỗ những người không đủ tư cách cư trú và người vô gia cư... những người không có địa điểm cư trú ổn định và do hoàn cảnh cá nhân nên không dễ gì mà họ tới và dù họ có tới các trung tâm y tế kiểm tra thì cũng sẽ không thu thập hồ sơ về họ và không sử dụng nó dù sau này có thực hiện lại lệnh yêu cầu quay về nước.

Đây là điều luật miễn trừ bổ sung được thông báo dựa trên Điều 2-2 của Nghị định cưỡng chế của Điều luật kiểm soát người nhập cư.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chưa được đăng ký thẻ cư trú tại Hàn Quốc khi bị phạm tội họ cũng không dám khai báo vì sợ bị trục xuất. Luật này là để ngăn chặn những tình trạng đó. Theo như điều luật này,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đăng ký thẻ cư trú tại Hàn Quốc, khi nghi ngờ có triệu chứng bị nhiễm virus Corona 19, dù có tới các bệnh viện, trung tâm y tế, hay bất kỳ tổ chức y tế nào để kiểm tra thì thông tin của họ cũng sẽ không bị tiết lộ cho b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hay các cơ quan quản lý người nước ngoài.

Ngoài ra, Trung tâm ứng phó an toàn thiên tai trung ương tuyên bố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môi trường kiểm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có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ính phủ sẽ phối hợp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ể thực hiện kiểm tra môi trường làm việc, điều kiện cư trú và hướng dẫn khoảng cách xã hội an toàn tại nơi làm việc,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tính cần thiết của việc cho dừng sản xuất và phải tiến hành kiểm tra trong trường hợp xưởng có người bị nhiễm. Những tài liệu

hướng dẫn có liên quan tới virus Corona 19 được dịch ra 16 thứ tiếng lấy trọng tâm là những khu vự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hay tập trung nhiều nhất.

Để phù hợp với thực tế, chính phủ đã điều chỉnh để việc điều trị luôn được tiếp tục nên đã quyết định lập các điểm kiểm tra di động tại những nơi có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Các phòng khám sàng lọc của trung tâm y tế sẽ được cung cấp nhân viên phiên dịch của trung tâm hỗ trợ từ Bộ Tư pháp, Bộ Lao động và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Ngày 03 tháng 05, Bộ y tế đã gửi một tin nhắn tới toàn dân, nế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có triệu chứng nhiễm bệnh, hãy gọi tới đường dây nóng 1339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한글 기사 상단〉

Phóng viên Choi Ye Ji



부천시 모든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

전국 최초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 외국인 가능 여건 마련

부천시의회가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사진은 부천시의회 단체 사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 부천시의회에서 빠르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 대상 범위에 △결혼이민자(재한 외국인 체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추가했다.

특히 조례 제5조 4항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부천시는 당초 경기도기본재난소득 지급 대상 범위에 추가됐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범위보다 한층 확대된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동희 의원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김동희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했다. 〈관련 기사 24면〉

최예지 기자

최예지 기자

언어 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어학습에 앓는 어려움을 사울 수 있도록 영어발달 수업을 펴가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영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수료증 및 서비스 청탁

1.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과 동별 낮 11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출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출국신고증
2. 고용난자족(고용인증번호, 고용보험증명, 배치등록, 낮 11세) : 고용인등록증 또는 가족신고증
3. 복지나입주민가족 : 복지나입주민 등록증이나 기부금증명서 등
4. (선택) 부모가 사실을 꾸며 둘째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학제를 충족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서비스신청 및 서비스 청탁

1. 서비스신청 : 청탁 및 내용 문의 → 평가 실내 확인
2. 초기면접 및 청탁 : 평가(면접방법 및 종료) → 대체 일 교육사랑
3. 교육신청 : 주 2회, 총 40분 교육 현장(1회 4개월 진행)
4. 청탁 및 속료 청탁 :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전전면적 청탁 → 결과에 따라 연장<=>부정청 (한국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양육도움나이 이후판단 : 양육교수서비스 종료 시 양육도움나이 청탁

※ 청탁 및 평가 청탁

※ 청탁 및 평가 청탁은 아동과 함께 있는 아동과 함께 청탁을 원하는 경우 영어발달교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양육교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경우 영어발달교실을 충족사항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임지연 070-4457-6106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부천시에 마스크 2만장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예정

펼벽국제문화교류 협력도시인 중국 진강시에서 부천시민을 위해 보내온 마스크 2만장이 5월 7일 부천시에 도착했다.

마스크 상자에는 肝膽每相照, 氷壺映寒月(간담매상조, 빙호영한월)이라는 응원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서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이는 깊은 사귐이 마치 옥주전자에 비친 차가운 달빛처럼 투명하다는 의미다.

소설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펼벽 여사는 중국 진강시에서 유소년시절을 보냈다. 부천시에서는 소사회미원(현 펼벽기념관)을 건립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3편 (한국에서 온 두처녀(1951), 살아있는 갈대(1963), 새해(1968))을 발표하는 등 중국 진강시와 부천시에 모두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부천시와 진강시는 펼벽 여사를 매개로 문화예술 및 연구 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다 2019년 펼벽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펼벽국제학술교류, 문화예술단체 교류방문 등 문화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천시는 진강시가 지원한 마스크 2만장을 사회적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중국 진강시에 감사하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내 나공이용시설” 및 “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새로운 일상

KCDC

30초 손씻기, 기침은 웃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헌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알아서도 마음은 가까이

2020.05.05.

최갑철 도의원, 부천상담소에서 오정지역 거점경로당 검토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오정지역 노후경로당의 현황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거점경로당의 검토와 사업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는 오정지역의 오정 제1경로당 등 7개소의 노후경로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의 현황을 확인하고, 거점경로당의 지정을 위한 검토 및 예산확보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갑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진행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권정선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샘물자리보호작업장에서 생산중인 국수, 누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썹(HACCP)인증이 필요하나, 현시설은 공간협소 및 임차 건물로 개·보수가 불가하여 시소유의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작업장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사업비 보다 예산액이 증가되어 사업완료에 어려움을 예상된다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19. 8월 시작으로 2021.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평상시 가정에서

- ★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고 만일 의심 증상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 ★ 자녀에게 손 씻기와 개인위생 실천교육을 해주세요.
- 손 씻기 방법**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빙글빙글 손 소독제 사용
- 가정예절**
유자나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사용한 휴지는 안전하게 버리고 손수건은 깨끗하게 세탁하기
-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사용 전후 손 씻기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있도록 가리고, 쓰고 뺏을 때 절연면은 안지 않기
• 옷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관리하기

★ 자녀에게 의심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관찰하세요.

★ 증상 악화 시, 1339 ☎(국내번호+120) 또는 보건소 상담.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 선생님께 알린 후 등교하세요.

★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공감해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 만일 자녀가 차가려거나 중이라면, 두려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세심한 관심과 치지를 해주세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전

- ★ 모든 학생 발열 검사
- ★ 37.5°C 이상의 발열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바로 귀가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대기공간에서 보호)
- ★ 지정된 천안 관리인이 학생 건강상태 확인
- 발열 검사 시,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원칙 ■ 검사 실시자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등교 후

- ★ 교실 간 이동, 불필요한 활동 자제
- ★ 교실장은 수시개방 등 흰기 생활화
- ★ 학교 내 주요 공간은 1인 1회 이상 소독
- ★ 일과 중 발열 검사
- ★ 외부인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 건강 확인 후 학교장 방문 허가)
-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책상 간 거리 확보, 휴식시간, 청진시간 교차 실시, 집단행사 및 공동 교육 활동 자제)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장소에서 관리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학교급식 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운영합니다.

★ 급식실 출입 이전에 학생 발열 검사

★ 식사 시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시 대화 삼가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는 매일 청소 소독 및 식당 환기 강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감염의심자 발생 시

학교는 학생의 감염이 의심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결과 음성이더라도 격리동지서에 표시된 격리기간 동안(14일) 등교·출근 중지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 자가격리 중에는

- ★ 외출을 금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전화 등) 사용,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 ★ 담임 선생님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 ★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온라인 학습 등 학습 환경 마련하기

하나. 자가격리 아이들이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해 주세요.

둘. 아버지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셋.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친화, 문자 등을 통해 친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넷. 격리기간 동안 긍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는

교육부

인터뷰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지원 길 열렸다

정재현 위원장, "우리 주변의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된 것, 자랑스러워 할 일"

부천시의회가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지역사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으며 지급 대상 범위에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가 추가되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만났다.

Q.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A. 많은 분들의 공감과 협력 덕분이다.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부천시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겠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결단이다.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전체를 끌어안겠다는 결정이 아니면 이 안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부천시에서는 최소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특히 조례 5조 4항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것 같다.

A.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에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나 이주노동자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다같이 한 마음으로 넘기고자 시도하는 정책이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사정이 갈려서야 되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부천시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Q. 그간 안산형 생활지원금을 이야기 할 때 '전국 최초'라는 수식을 많이 붙였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마련한 조례는 안산형과 어떻게 다른가.

A. 지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한국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구비한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있다. 물론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법이 없는 건 맞다. 당장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돋겠나. 최소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근거를 남겨놓고자 했다.

Q. 사실 어느 정도 논란을 예상했으리라 본다. 가장 크게 들리는 얘기로 '외국인은 세금도 안 내는데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하느냐'와 같은 의견이 있다.

A. 외국인주민도 세금을 낸다.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 마시는 물 한 병에도 다 세금이 붙는다. 만일 그가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면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와 같은 유류세를 한국에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외국인노동자도 모두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그가 받급받은 비자의 종류나 체류 기간, 소득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일용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Q. 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

A.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한다면 그렇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대답과 현실적인 대답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도 이주의 역사,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점이다. 만주에 가서 어렵게 독립운동을 한 우리 선조도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인주민 아니었겠나.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로 일했던 분도 그곳에서 외국인노동자였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거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 대응을 잘한 국가 중 한곳으로 꼽힌다. 그런 나라에서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누적 확진자 중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80%를 넘는다. 결국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방역하고도 연동이 된다는 의미다.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사회의 약한 자리, 열악한 환경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Q. 부천시의 이번 결정이 다소 급작스러운 전환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경기도의 입장과 부천시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나.

A. 당시에 섭섭함을 느낀 분이 많았던 걸로 안다.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조율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일정 비율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즈음 부천시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기준에 맞춰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속하고 경기도에도 속한 부천

시 사람들 아닌가. 정부와 경기도의 지향점이 다른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다. 대상 시민의 소득에 따라서, 그가 거주하는 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 될 텐데 긍정적인 일이 아니지 않나.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잘 풀렸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함께 지급했던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과는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쓰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비율이 87%인데 여기에 부천시에서 남은 13%를 보태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Q. 위원장님의 지난 이력을 보면 노동자 인권 문제,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A. 예전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때 보고 들은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데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큰 이유가 있겠나. 내가 가난하다.

Q.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기는 한데, 요사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를 처리하느라 부천시콜센터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부천시의원들이 일부 상담을 나눠 맡았다. 나도 오늘만 벌써 몇 건이나 상담해드렸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문의할 곳이 없는 부천시민께서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면 좋겠다. 연락처는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다.

최예지 기자



02 | **प्राथमिक तहको शिक्षा**

प्राथमिक शिक्षा 6 वर्षको हुन्छ। 6 वर्षका बालबालिकाहरु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योग्य हुन्छन्। (पश्चिमी देशको 6 वर्षको उमेर कोरियाको 8 वर्षको उमेर बराबरहुन्छ। कोरियामा भर्खर जन्मिएको बच्चाको उमेर एक वर्षको ठाणिन्छ तथा उसको उमेर अर्को वर्षको जनवरी 1 मा 2 वर्षको हुन्छ। डिसेम्बर 31, 2016 मा जन्मेको बालक जनवरी 1, 2017 मा 2 वर्षको हुन्छ।)। त्यो बालक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 जान सक्छ। प्राथमिक शिक्षा अनिवार्य र तिःशुल्क हुन्छ। अभिभावकहरूले आफ्ना बच्चाहरूलाई अनिवार्यपूर्ण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गरेर, बालबालिकालाई प्राथमिक शिक्षा प्रूण गर्न लगाउनु पर्छ। यदि आफ्ना बालबालिकालाई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 नपठाएमा अभिभावकहरूले जरिवाना तिर्नुपर्न दुनसक्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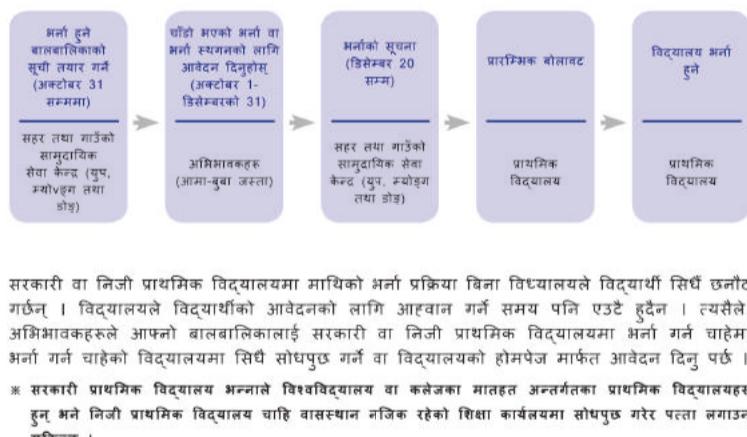
1. शैक्षिक विषयवस्तु

प्राथमिक शिक्षाले पढन लेखन र दैनिक जीवनका लागि आवश्यक आधारभूत क्षमता, जीवनयापनको चर्चा, असल चरित विकासमा जोड दिन्छ। 1 घण्टाको कक्षामा 40 मिनेट पढाइ हुन्छ, 1~2 कक्षाका विद्यार्थीहरूले कोरियन, गणित, सही ढंगले जीवन यापन गर्ने अनुशासन, व्यवहारिक जिवन, रमाइलो जीवनका लागि आवश्यक सिप तथा बानी व्याहोरा सिक्दछन्। 3~6 कक्षाका विद्यार्थीहरूले कोरियन, सामाजिक शिक्षा/जैतिक शिक्षा, गणित, विज्ञान/गृह विज्ञान, शारीरिक शिक्षा, संगीत/कला, अंगेजी, आदि सिक्दछन्।

विषय	1~2 कक्षाका विषय	3~6 कक्षाका प्रमुख विषय
कोरियन	सुनाइ• बोलाइ, पढाइ, लेखाइ, व्याकरण, साहित्य	(समाज) भौगोल, साधारण समाज, इतिहास, साधारण समाज, इतिहास, (जैतिक शिक्षा) आफूसितको सम्बन्ध, समाज तथा समूदायसितको सम्बन्ध, प्रकृतिसितको सम्बन्ध, आदि।
गणित	कोरियन, गणित, सही ढंगले जीवन यापन गर्ने अनुशासन, व्यवहारिक जिवन, रमाइलो जीवनका लागि आवश्यक सिप तथा बानी व्याहोरा सिक्दछन्।	संख्या तथा अर्थगणित, चित्र, मापन, नियमितता, निरन्तरता, संभावयता
विज्ञान/ गृह विज्ञान	(विज्ञान) गति तथा शक्ति, पदार्थ, जीवन, पृथ्वी तथा अन्तरिक्ष, (घरेलु जीवन), परिवारिक जिवन, प्रविधिको संसार	स्वास्थ्य, चुनौती, प्रतिस्पर्धा, अभियक्षित, सुरक्षा
शारीरिक शिक्षा	स्वास्थ्य, चुनौती, प्रतिस्पर्धा, अभियक्षित, सुरक्षा	(संगीत) अभियक्षित, अवलोकन, दैनिक जीवन, (कला) अनुभूति, अभियक्षित तथा प्रसंसना
कला(संगीत/ चित्रकला)	सुनाइ, बोलाइ, पढाइ, लेखाइ	
अंगेजी		

(2)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 प्रक्रिया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 प्रक्रिया



सरकारी वा निजी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माथिको भर्ना प्रक्रिया बिना विद्यार्थी सिर्दै छन्नै छर्नेट गर्नेट। विद्यालयले विद्यार्थीको आवेदनको लागि आवाहन गर्ने समय पनि एउटे हुँदैन। त्यसीले, अभिभावकहरूले आफ्नो बालबालिकालाई सरकारी वा निजी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गर्न चाहेमा भर्नी गर्न चाहेको विद्यालयमा सिर्दै सोधपुछ गर्न वा विद्यालयको होमपेज मार्फत आवेदन दिनु पर्छ।

* सरकारी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 अन्नासे विश्वविद्यालय वा कलेजका मातहत अन्तर्गतका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हरू हुन् भने निजी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 चाहे वास्थान नजिक रहेको शिक्षा कार्यलयमा सोधपुछ गरेर पत्ता लगाउन सकिन्छ।

(3) प्रारम्भिक भर्ना तथा भर्ना पछि सार्व

बालबालिकालाई प्रारम्भिक भर्ना गराउन चाहने अभिभावकले प्रत्येक वर्ष अक्टोबर 1 तारिखदेखि डिसेम्बर 31 तारिखसम्म सम्बन्धित क्षेत्रको वडा कार्यालयमा गरेर आवेदन दिनु पर्छ। भर्ना पछि सार्व चाहने अभिभावकले भने बच्चाको उमेर 7 वर्ष पुग्ने दिनको वर्षको जनवरी 31 तारिखसम्म पछि भर्ना गर्ने विद्यालयमा आवेदन दिनु पर्छ। (शैक्षिक सत्र 2017 बाट भर्ना हुने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लाग)

④ चाडी भर्ना-भर्ना पछि सार्व बालक

• चाडी भर्ना गर्ने : जनवरीको 1 देखि डिसेम्बर 31 सम्म 5 वर्ष उमेर पुगेको बालक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 लायक हुन्छ (1 वर्ष चाडी भर्ना गर्न सम्भव)

* 2018 शैक्षिक सत्रमा चाडी भर्ना गर्न 2012 साल जनवरी 1 ~ डिसेम्बर 31 सम्म जन्म भएकाले आवेदन दिन पाउँन।

• भर्ना पछि सार्व : जनवरी 1 देखि डिसेम्बर 31 सम्म उमेर 6 वर्ष पुगेकोले प्राथमिक तहको भर्ना 1 वर्ष पछि सार्व सक्छन।

* 2018 शैक्षिक सत्र भर्ना पछि सार्व 2011 साल जनवरी 1 ~ डिसेम्बर 31 सम्म जन्मका बालक हुनुपर्ने र 2019 शैक्षिक सत्रमा भर्ना मार्च 1 तारिकमा भर्ना प्राप्त गर्नेको लागि हुनेछ।

* चाडी भर्ना गर्न-भर्ना पछि सार्व काम अभिभावकको निर्णयमा भर्ने पर्न भएकोले आवेदन दिनु अघि गहिरिएर सोच्नु पर्छ।

2. सृजनात्मक कृयाकलापको अनुभव लिनु

सृजनात्मक कृयाकलापमा पाठ्यक्रम बाहेकको अतिरित कृयाकलाप भन्नतर्फत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गरिने क्रियाकलाप, विद्यार्थी क्लब गरिएको, अविद्याको करिअर सम्बन्धित गतिविधी र स्वयंसेता गरी चार क्षेत्रमा गरिने गतिविधीलाई जनाउंदै भने, विद्यार्थीको व्यवितरण विकासको चरण तथा शैक्षिक चाहना आदिलाई मध्येनजर गरी विद्यालय तह अनुसार विविध गतिविधी छन्नैट गरी संचालन गर्न सकिन्छ। प्राथमिक तहको विद्यार्थीहरूले लागि यस्ता गतिविधीहरू निम्न अनुभाव तय गरिएका छन्।

क्षेत्र	कृयाकलाप	विद्याकाले उद्देश्य
स्वतन्त्र कृयाकलाप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स्वतन्त्र-प्रूफिलिंग गराउने कृयाकलाप सृजनात्मक कृयाकलाप आदि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झर्नेर भर्ना हुदा घुलिमिल गराउने कृयाकलाप, वयस्क हुदा संयम दुने कृयाकलाप, रमाइलो अनुभुतिको जानन र हातले बनाउने संस्कृतिक कृयाकलाप
क्लबको कृयाकलाप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कला-शारीरिक कृयाकलाप कला सम्बन्धित कृयाकलाप बालबालिकाको सामुहिक कृयाकलाप आदि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विभिन्न अनुभव र संस्कृतिक कृयाकलाप मार्फत आफ्नो खुबीको परिचान शारीरिक अनुभुतिको जान र हातले बनाउने अनुभव आदि
विवरणको कृयाकलाप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ठिक्नेकोलाई साधाउने कृयाकलाप वातावरण संरक्षण कृयाकलाप विवरणको संसार कृयाकलाप आफुपिन्ने कृयाकलाप जिवनपथ पहिलाउने साधाउने कृयाकलाप कामको महत्व बुझ्ने, रोजगारीको दुनिया जिन्ने, जिवनपथमा अघि बदन आधारभूत सिस्पो विकास आ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स्वयंसेवा गर्नुको अर्थ जानेर, बुझ्ने, व्यवहारमा लाग्ने गर्ने कामको महत्व बुझ्ने, रोजगारीको दुनिया जिन्ने, जिवनपथमा अघि बदन आधारभूत सिस्पो विकास आधि

3.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को भर्ना प्रकृया

(1) भर्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जाने) बच्चा

- ①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मा समावेश हुनेमा त्यस वर्षको जनवरी 1 देखि डिसेम्बरको 31 तारिखसम्म 6 वर्ष पूरा भएका बालबालिका पर्छन तथा उनीहरु अर्को वर्षको मार्फतमा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योग्य हुन्छन्।
- ② भर्ना स्थगित भएका र अधिलो वर्ष भर्ना नभएकालाई भर्नाको लागि मान्यता दिएर, चाडै भर्ना भएका र समावेश हुदैनन्।
- * 2018 शैक्षिक सत्रको लागि नयाँ विद्यार्थीको खण्डमा 2011 साल जनवरी 1 देखि डिसेम्बरको 31 तारिखसम्म जन्मेका बच्चा
- 2019 शैक्षिक सत्रको लागि नयाँ विद्यार्थीको खण्डमा 2012 साल जनवरी 1 देखि डिसेम्बरको 31 तारिखसम्म जन्मेका बच्चा

(4) सामान्य भर्ना प्रक्रिया मार्फत विद्यालय भर्ना गर्ने कठिनाई भएका बालबालिकाको भर्ना

- ① कोरियामा प्राथमिक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 पुगेको विद्यार्थीको हकमा विसाको प्रकृतिसंग सरोकार नराखी कुनै पनि बालबालिकाले विद्यालय शिक्षा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 अधिकार छ।
- ② विद्यार्थी कोरिया प्रवेश गरेको तथ्य प्रमाणित गर्ने तथा आवासीय काई दर्ता गरेको पुष्टि हुने कागजात एवं शैक्षिक प्रमाणपत्र* समर्गन गरी बालबालिका भर्ना आवेदन फारम भर्नु पर्छ।
 - कोरिया प्रवेश गरेको तथ्य प्रमाणित गर्ने तथा आवासीय काई दर्ता गरेको पुष्टि हुने कागजात पेश गर्ने गाहो भएमा घर सम्झौता पत्र, बालबालिका गरेको पुष्टि हुने रायारेन्टी पत्र जस्ता कोरियामा आवास ग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5. 특산품

대화-전통시장에서

메이 : 민정 씨, 지금 어디 가세요?

민정 : 오늘 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전통시장이 열려요. 거기 가려고 나왔어요.

은숙 : 마침 잘 만났어. 같이 가려고 전화했어.

민정 : 오늘 장이 엄청 크게 열린다고 하던데요.

은숙 : 1년에 2번 농협에서 엄청 크게 전국의 특산물을 시장을 열어. 구경할 만해.

민정 : 전단지에 보니까 공연도 하고 경품 추첨도 있어요.

은숙 : 작년에 인삼이랑 마늘을 좀 많이 샀는데 아주 품질이 좋아서 올해도 사려고 해.

민정 : 전국의 특산품이니까 특별한 상품도 많겠네요.

은숙 : 일단 구경하면서 맛도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도록 하자.

메이 : 오늘 시장에는 평소에 못 보던 상품들이 참 많네요. 이게 다 유명한 것들이예요?

민정 : 메이 씨가 모르는 것도 많겠구나. 지방마다 특산품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아.

은숙 : 며칠 뒤에 날짜 생일이니까 기장 미역을 좀 사야겠다. 영광 굴비도 좀 사야겠네.

메이 : 여기에 오징어도 있네요. 중기 씨가 오징어 좋아하는데 사야겠어요.

은숙 : 울릉도 오징어야. 아주 유명해. 울릉도 호박엿도 유명하니까 같이 사.

메이 : 민정 씨는 과일을 많이 사셨네요?

민정 : 과일이 아주 품질이 좋네. 대구 사과랑 나주 배를 좀 샀어.

메이 : 지방마다 특산품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어야겠네요. 구경하니까 재미있어요.

은숙 : 메이 씨, 이것도 맛 한번 볼래? 순창 고추장인데 아주 맛이 좋아.

민정 : 오늘 쇼핑 좀 많이 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아쉬워요.



안진숙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특산물’은 ‘기후나 지형의 영향으로 어떤 고장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물건이나 식품 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특산물

기후나 지형의 영향으로 어떤 고장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물품

- 손님 여러분, 오늘 영덕 특산물인 대게를 아주 싸게 판매합니다.
- 지난번 통영에 가서 특산물인 나전칠기를 구경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한국의 모든 지방마다 각자 특색이 있는 특산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나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산물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를 미리 알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문화 - 울릉도와 독도

한국의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갖춘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양한 해산물, 특히 오징어가 유명하고, 호박엿도 잘 알려진 특산물입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도 유명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비록 크기는 작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영토 분쟁으로 인해 꼭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의 삼정성을 가진 섬입니다.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ไม่มีวีซ่า)' ได้รับ การตรวจ corona19 ฟรีโดยไม่ต้องออกเดินทาง ในกรณีที่สงสัยว่ามีอาการ Corona 19 การเข้า ชม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ในห้องถีน ไม่มีการจับกรุ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ไม่มีวีซ่า' จะไม่มี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และถูกบังคับให้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กลางถูกควบคุมโดยเข้าออกว่าเขาจะเลื่อ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คนงานต่างด้าว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นั้นเพื่อที่เข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โควิด-19 โดยไม่ต้องกว้างเรื่อง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ตรวจและรักษา

ในวันที่ 1 พฤษภาคม 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กลางประจำศูนย์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ป้องกันชาวต่างด้าว

ต่างด้าวกว่า 380,000 คนที่คาดว่าจะสูญเสียสถานะในภายหลังเนื่องจากวีซ่าหมดอายุ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ชาวต่างด้าวที่

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 ไม่มีวีซ่า ที่มีอาการของโควิด-19 จะไม่ถูกกักกัน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นักเทคนิคที่เงียบสงบ'

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บรรยายสรุปในวันนี้คิมกงริป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กลาง “ผู้อยู่อาศัยที่

ไม่มีเงื่อนไขและผู้ไร้ที่อยู่อาศัยอยู่ในสถานที่ที่ไม่มั่นคงแม้ว่าจะมีอาการที่น่าสงสัย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ภาพและสถานการณ์ที่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จากการที่จะหาคลินิกตรวจคัดกรองมันเป็นไปไม่ได้ที่จะใช้มูลนี้แม้ว่า (ชาวต่างด้าวที่ไม่ได้)

จดทะเบียน หรือ วีซ่า) ใช้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เช่น 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 เพื่อร่วมบันทึกที่ยังคงอยู่

นีคือระบบการยกเว้น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ตามข้อ 2-2 ของกฎหมายควบคุ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

เข้าเมืองมันถูกนำมาใช้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ชาวต่างด้าว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รายงาน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นื่องจากกลัวว่าจะถูกบังคับให้ส่งตัว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ยังคงลัก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อาชญากรรมตามกฎระเบียบแม้ว่าจะมีชาวต่างด้าว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ถูกสงสัยว่ามีอาการของโควิด-19 และถูกตรวจสอบโดยสถาบันการแพทย์สาธารณสุข เช่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 Fantasia

พยาบาลและ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ของผู้ป่วย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ไปยั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นอกจากนี้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ตอบสนอ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กลางประจำศูนย์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กักกั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ทั้งภายในและภายนอกท้องถิ่นให้ความร่วมมือใ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กกันส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แนวทางระยะทางสังคมในที่ทำงานและนายจ้างจะได้รับแจ้งถึง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ยกเว้นและตรวจสอบ

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จะเปลี่ยนและส่งเสริมแนวทางการทดสอบระบบการรักษาโควิด-19 ใน 16 ภาษาโดยเน้นไปที่พื้นที่ที่มี

ที่หนาแน่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ด้าวรวมถึงเว็บไซต์เหล่า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นี้เรายังตัดสินใจที่จะทำการตรวจคัดกรองทางมือถือที่กำหนดเป้าหมายไปยังพื้นที่ที่หนาแน่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ด้าว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ทำการรักษา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ได้หากจำเป็น

คลินิกตรวจคัดกรอง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จะจัดให้มีเจ้าหน้าที่ศูนย์บริการล่าม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งหวัดและแรงงาน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สมอภาคหญิง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เป็นผู้ให้บริการล่ามที่ใช้แบบตัวต่อตัว

เมื่อวันที่ 3 พฤษภาคม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ส่งข้อความภัยพิบัติที่มีข้อมูลดังกล่าวข้างต้นให้ประชาชน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ด้าวที่กับการเข้าพักที่ผิดกฎหมายอาการได้ขอให้โทร 1339 หรือ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ท้องถิ่น

นักเข้าช่วย夷 (한글 기사 21면)

이아리 기자

어려움 커지는 이주민 돋기 나섰다

부천원미경찰서, 외국인 후원 행사 개최



부천원미경찰서(서장 홍기현)와 외사자문협의회(회장 김현기), 아시아인권문화연대(대표 이란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 이주민 20가구를 선정하여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김현기 외사자문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 이들에 대한 온정과 사랑의 손길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기현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박탈감 해소 등에 기여하는 만

큼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하며 부천지역 이주민을 위한 후원과 봉사를 실천하는 외사협력자문위원회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는 “산재를 당해 현재 치료 중이고 수입이 없는 난민 신청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와 외사자문협의회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예지 기자

多文化的家庭，挑战“京畿青年+4贸易经理”

截止6月5日招募青年，外国学生和多文化教育生

京畿道29日宣布，将招募参加2020年京畿道青年+4贸易经理培训项目的学员，以培养贸易专家。

“京畿道青年+4贸易经理”培育项目通过解决在确保专业人才方面遇到困难的出口公司与希望找到工作的京畿道青年+4（外国学生，外国学生，多文化人群）之间的错配，从而增强了出口竞争力。为了提高就业机会的良性循环，京畿道是2016年开始的项目。

今年，要选拔的学员人数为100名，并计划以英语，中文，日语和越南语的4种语言在4个班级中招收约30名学生。

在线课程上课后，将从7月至8月以集体教育的形式进行该计划，为期2个月，培训地点将根据参与者的可及性和周围的生活环境来确定。

学员将通过涉及贸易指导员的系统培训课程，学习可用于该领域的实用贸易实践，例如贸易实践，合同，付款，

在线营销，业务谈判策略以及外语特别讲座。

所有毕业生都将以总督的名义获得结业证书，成绩优秀的毕业生将有机会参加该省公司的实习机会，与工作相关的安置以及海外营销项目（G-FAIR，出口咨询等）。

通过这个“京畿青年+4贸易经理”培育项目，将建立一个良性循环系统，通过为在保护主义中苦苦挣扎的出口公司提供出色的专业人才，从而导致出口经济的复苏，创造就业机会和经济振兴。是期待。

您必须在京畿道以青年，大学生，外国学生或多文化人士的身份申请英语，中文，日语和越南语等外语。如果您想申请，可以在6月5日之前从京畿道工作平台“Job Abba”下载申请表，然后通过电子邮件，邮件或访问将其提交给京畿道工作基金会。

〈한글 기사 36면〉 왕그나 기자

“도움 필요한 사람 돋는 건 당연”

(사)경기글로벌센터 정기후원하는
외국인주민 아하마드 미얀 사기르 씨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동등한 사람임을 되새기는 의미에서다”라며 “어려운 사람을 돋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려운 처지에 놓인 누군가가 있다면 이웃으로서 그를 돋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사기르씨는 14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그의 봉사정신은 고스란히 가풍으로 이어져, 미래에 수의사를 꿈꾸는 그의 자녀 사파 사기르 역시 나눔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그는 “장래에 수의사가 되어서 병들고 다친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기르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지금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수출단지에 자리를 잡고 국내 중고차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경제인이다.

입국 이후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기글로벌센터와 인연을 맺은 그는 “평소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한국에 와서 노력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파키스탄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 대구적십자사에 후원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기르씨는 “곧 있으면 라마단 기간이다. 이슬람교인은 이 시기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한다. 지난해 이의 굶주림에 동참

한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사기르씨는 이번 후원과 함께 매월 10만원씩의 정기후원 및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간식 후원을 약속해주었다”며 “외국인주민은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경기글로벌센터와 외국인주민들은 오히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적응이 끝난 외국인주민들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거주민을 돋고 싶다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업내용: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업일정: 2020. 6. 1.(월) ~ 12. 10.(목) / 예정
신청대상: 만 3세~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신청기간: 2020. 5. 25.(월) ~ 9. 29.(화)
신청대상: 만 3세~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Made with MANGBOARD
경기도 아시아·아프리카인·외국인·부녀·장애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아시아·아프리카인·외국인·부녀·장애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내 다양한 갈등 상담 서비스로 해결

오산건가다가, 2020년 가족상담사업 상시 운영

2020년 가족상담사업	
1. 상담기간 : 2020년 1월 ~ 12월 상시 (비용무료)	조사기관인가증·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상담대상 : 오산시 거주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3. 신청방법	
- 전화신청 : ☎ 031-377-9776 (가족지원 3팀)	
- 사이버상담 : osan.familynet.or.kr	온라인 상담 가족상담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4. 상담내용	
- 일반상담 : 이혼전후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그 외 가족상담, 개인상담	
- 상담프로그램 : 가족집단상담(이혼전부부집단상담), 성인/아동/엄마대상집단상담 등	
- 1회기당 50분 진행(총 6회기), 심리검사(필요 시 진행하며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음)	
5. 이용시간	
- 주간상담 : 월~금 (09:00~18:00) / 야간상담 : 수·목 (18:00~21:00)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관내에 거주하는 오산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 사업의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중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산건가다가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복지 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및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비혼청소년 임신 갈등 상담 등 가족 구성원이 생애주기 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듣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오산시 가족 역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

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면접, 전화, 인터넷 등으로 상담 창구를 선택할 수 있다. 심리검사의 경우에만 일부 실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377-9776)로 문의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교육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ITQ(파워포인트)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의 역량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ITQ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 및 자격시험을 대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산시건가다가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취업 연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기초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산시건가다가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고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은 5월 12일 시작해 오는 5월 22일 금요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문의 031-372-1335

최예지 기자

오산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된장만들기



오산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열)는 4월 29일 오산시 새마을회관에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된장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20명 및 새마을부녀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된장 만들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 된장 270여개는 다문화가족 체험자 20여명과 6개동 취약계층 250세대에 전달해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약자와 온정을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이순열 오산시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동참한 새마을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활동이었다”며 “매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된장 만들기 행사를 통해 주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예지 기자

2020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한국어교육을 수강할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강의일정

대상	과정명	강의일정
결혼이민자 (반별 20명)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한국어수준 중급 이상)	6/5 ~ 7/31 매주 금, 10:00~13:00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한국어(왕초보반)	6/2 ~ 8/27 매주 화,목 10:00~13:00
	정규한국어 1단계	6/2 ~ 9/24 매주 화,목 10:00~13:00
	정규한국어 2단계	6/2 ~ 9/24 매주 화,목 10:00~13:00
	TOPIK 고급반	6/1 ~ 7/10 매주 월,수,금 10:00~13:00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6/1 ~ 8/31 매주 월,수,금 10:30~13:00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강신청 및 배치평가

기 간	-5/20(수) ~ 5/28(목)
	* 신청수 마감일 수 있으며, 마감 시 대기접수 * 방문체한 시간 11:30~13:00 또는 접수부가
방 법	-센터 방문 접수(주소: 오산시 성호대로 83, 1층) -정규한국어 수강 희망자는 배치평가 실시 후 접수에 따라 수강 가능 * 2019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강생은 배치평가 없이 단계배정
준비물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비 고	-센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3. 문의 : 070-4336-1406 / 031-372-1335 (가족지원2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경기도·오산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교육일정
2020. 05. 25 (월) ~ 06. 24 (수)
매주 월·수·금, 주3회 / 총 14회기 진행
※ 코로나19 및 센터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14:00 ~ 16:00 (1회기당 2시간)

교육내용
-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파워포인트 활용 및 시험대비교육

교육대상
한국어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희망 결혼이민자
* 우선순위
(1순위) TOPIK 3급 이상 취득이력자
(2순위) 한국어교육 중급이상 과정 수료자

교육인원
8명 (*선택순 마감)

교육장소
본 센터 3층 컴퓨터실

교 육 비
무료 (* 단,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본인부담)

시험일정
2020. 07. 11 (토)

공통사항
□ 모집기간 : 2020. 05. 12 (화) ~ 05. 22 (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 : 가족지원 2팀 김경화 031-372-1335)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한국어능력시험자격증, 한국어교육 이수증 등
※ 센터 방문시 마스크착용 필수!!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확대지급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6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안내

지급대상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형식

1인당 10만원이 총전된 선불카드

※ 분실 및 홱손 시,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 가능

사용기한

'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처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소 등 제외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31일

신청방법 체류지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 - 18:00) 방문 신청

* 혼잡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6.1 ~ 6.5)는 09:00 ~ 20:00까지, 5부제로 운영

월	화	수	목	금
생년월자리 1·6	생년월자리 2·7	생년월자리 3·8	생년월자리 4·9	생년월자리 5·0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대리신청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과 증빙서류 별도 제출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basicincome.gg.go.kr ☎ 경기도콜센터 031-120



May 12, 2020 - Tuesday 11AM

Online Emergency Briefing



Itaewon Club Cluster Infection Administrative Order Revision

- Date revised for individual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ests : April 29 → April 24
 - The revision was made by analyzing the date of the first confirmed patient, timing of the patient's symptoms and opening hours of the clubs.
- COVID-19 tests and contact prohibition orders for visitors to Itaewon clubs and Nonhyun-dong sleeping room
 - Subjects : Individuals who visited any of 6 clubs* in Itaewon-dong, Yongsan-gu, or the Black Sleeping Room in Nonhyun-dong, Gangnam-gu, after April 24 who live, reside, work in or have other connections to Gyeonggi Province
 - *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 Free testing provided to Gyeonggi residents who have visited the Itaewon / Nonhyun areas since April 24, even if the above clubs or sleeping room were not visited
 - Infection Test : May 11 (Monday) - May 17 (Sunday)
 - Public Health Centers and Screening Clinics in Gyeonggi Province
 - * Free COVID-19 tests available (no obligation to reveal whether you were in the Itaewon clubs)

Gyeonggi-do Call center 031-120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오산시청 031-8036-8036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나눔과비움 070-8891-86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00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24-98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범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2020年 5月12日 (周二) 11:00

紧急在线新闻发布会



《关于针对梨泰院夜店群聚感染行政命令变更的通知》

- 将感染检测行政命令对象的适用时间点从4月29日更改为4月24日。
 - 就最初患者和确认者出现症状的日期、
相关夜店开始营业的日期进行分析之后，变更适用时间点。
- 关于对梨泰院夜店,论岘洞睡眠房出入者进行新冠肺炎检测·禁止与他人接触的命令
 - 对象 : 4月24日以后出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6个地点*, 江南区论岘洞黑色睡眠房的人员当中, 在京畿道居住, 有居处, 工作或因其他事由停留的相关人员
 - *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 同时针对未出入上述夜店和睡眠房, 但在4月24日后访问过梨泰院·论岘洞的京畿道民众实施免费检测
 - * 感染检测 : 5.11(周一) ~ 5.17(周日) / 京畿道内保健所和筛选诊疗所
 - * 任何人在不公开是否出入过相关夜店的情况下, 都可以免费接受检测

京畿道呼叫中心 031-120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파주에서는 가족사랑으로 돌파한다

파주건가다가, ‘소통하는 부부’, ‘가족사랑의 날 젤리콤 비누 만들기’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진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월 29일에 진행된 가족사랑의 날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 파주시 거주 가족들이 긴 연휴 동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젤리콤 비누 만들기” 키트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센터 밖 워크 스루(walkthrough) 방식으로 키트를 배부했다. 파주시의 가족들은 각 가정 내에서 키트를 활용한 가족 단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젤리콤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의

한 참여자는 “코로나 때문에 심심했는데 안전하게 집에서 가족과 재미있는 체험을 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시건가다가는 현재 상황에 맞춰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부부 프로그램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관내 다문화 부부의 성평등 인식을 고취하고 부부문제 소통 및 평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하고자 “소통하는 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건가다가의 2020년 배우자·부부 프로그램은 파주관내 다문화부부 10쌍

(20명)을 모집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달간 진행된다. 배우자 성평등 교육,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 문화 체험 등 총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에서는 배우자 성평등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배우자 장점 찾기, 부부의 효과적인 대화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 세션인 “4050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 주여성, 그녀들의 수다를 엿보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사진 촬영 방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아내나 남편, 고향에 사는 가족 등 각자 그리운 사람에게 쓴 편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엮어 가족 이야기책을 제작하게 된다.

부부 문화 체험 세션에서는 ‘부부가 함

께하는 LED 캘리무드등 만들기’ ‘부부가 함께하는 라탄공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캘리무드등 프로그램은 글씨, 그림, 본국어 등 다양한 주제로 마음을 표현하여 부부만의 무드등을 만드는 체험활동이며, 라탄 공예는 부부만의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활동이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자·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에 행복과 친밀감, 소속감 등이 더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우자·부부교육 외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Hãy tham gia thử thách với “Thanh niên Gyeonggi + 4 người quản lý thương mại” Tuyển các đối tượng đào tạo là thanh niên, sinh viên, du học sinh ngoài, những người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tới ngày 05 tháng 06

Ngày 29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thông báo sẽ tuyển dụng các thực tập sinh tham gia vào dự án đào tạo nhân lực thương mại có tên “Thanh niên Gyeonggi+4 - người quản lý thương mại” tới ngày 05 tháng 06. Doanh nghiệp bồi dưỡng kinh doanh “Thanh niên Gyeonggi+4 - người quản lý thương mại” là doanh nghiệp hoạt động với mục đích hỗ trợ các doanh nghiệp xuất khẩu đang gấp khó khăn và Thanh niên Gyeonggi+4 (người trẻ tuổi, sinh viên,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người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muốn tìm việc làm phù hợp để giúp giảm bớt những khó khăn cũng như tăng cường khả năng cạnh tranh xuất khẩu, đồng thời nâng cao hiệu quả tìm kiếm việc làm đã được bắt đầu từ năm 2016.

Năm nay, dự kiến số lượng sinh viên được chọn là 100, và sẽ được chia thành 4 lớp theo 4 nhóm ngôn ngữ là tiếng Anh, tiếng Trung Quốc, tiếng Nhật Bản và

tiếng Việt nam. Chương trình sẽ được tiến hành theo hình thức học tập trung trong hai tháng (tháng 7 và tháng 8), sau khi các học viên tham gia khóa đào tạo Online, địa điểm học sẽ được quyết định sau khi xem xét khả năng tiếp cận của những người tham gia và cơ sở sống xung quanh họ. Các học viên tham gia khóa đào tạo này, sẽ được học và thực hành tại hiện trường thực tế về các lĩnh vực như thương mại, hợp đồng, thanh toán, tiếp thị trực tuyến, chiến lược đàm phán kinh doanh và các bài giảng đặc biệt bằng tiếng nước ngoài. Tất cả các sinh viên tốt nghiệp sẽ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học. Và người có thành tích xuất sắc nhất sẽ được tặng thưởng đồng thời được tạo cơ hội đi thực tập ở các công ty trên địa bàn tỉnh, giới thiệu việc làm và có cơ hội tham gia các dự án tiếp thị ở nước ngoài (G-FAIR, tư vấn xuất khẩu, v.v.).

Tỉnh Gyeonggi thông qua chương trình “Thanh niên

Gyeonggi+4 - người quản lý thương mại” lần này, sẽ hỗ trợ các doanh nghiệp xuất khẩu trong tỉnh bằng cách chi viện những chuyên gia xuất sắc thúc đẩy việc hồi phục nền kinh tế xuất khẩu, tạo thêm việc làm; đồng thời ổn định nền kinh tế, giúp nó tiếp tục trên đà phát triển.

Người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ý là những thanh niên, sinh viên, du học sinh, người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trong tỉnh - những người có thể sử dụng thành thạo một trong 4 thứ tiếng là tiếng Anh, tiếng Trung Quốc, tiếng Nhật Bản hoặc tiếng Việt nam. Thời hạn đăng ký là đến ngày 05/06, tải mẫu đơn từ trang “Công việc Abba” - một trang nền tảng việc làm tại tỉnh Gyeonggi. Rồi sau đó có thể nộp đơn đăng ký qua Email, bưu điện hoặc trực tiếp mang tới văn phòng.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02

Mga Pangunahing Uri ng mga Aksidente sa mga Bata

Unang Uri: Mga Aksidente sa Tahanan

Mga Aksidenteeng Pagkahulog sa Higaan at Pagkawala ng Hinli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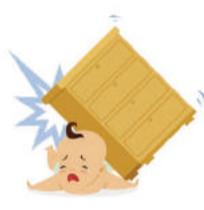


Pagkahulog

Sa kasanggulan, malamang na mahulog ang mga bata sa mga higaan o sopa at maballan o magkapasa.

- Huwag iwanang mag-isá ang mga bata.
- Maglagay ng mga panghihang pananggol sa paligid ng higaan.
- Maglagay ng mga sapin pangahang upang maibisan ang puwersa ng bagsak sa isang aksidenteeng pagkahulog.

Mga aksidenteeng pagkauntog sa muwebles at pagbagsak nito



Mga pinsalang sanhi ng pagkauntog sa muwebles

Malapit ang mga sanggol na nag-aaral maglakad sa mga pinsalang sanhi ng pagkauntog sa mga muwebles.

- Gumamit ng mga muwebles na may mga bilugang tabi.
- Maglagay ng mga sapin kontra-dulas sa mga kuwarto at banyo.
- Magdikit ng mga kutsong panggilid sa mga kantong ng muwebles.

Pagkawala ng hinlinga

Ang pinakamalaking sanhi ng kamatayan* sa kasanggulan ay ang pagkawala ng hinlinga lalo na sa mga higaan.

- Itihaya ang mga bata sa unang taon.
- Gumamit ng mga higaang angkop sa edad ng mga bata.

Mga aksidenteeng pagbagsak ng mga muwe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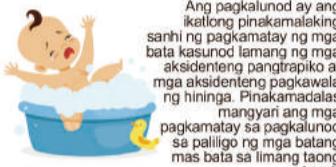
Ang mga pagbagsak ng muwebles o telebisyon ay maaaring mauwi sa malubhang pinsala sa ulo o kamatayan.

- Ikandado ang mga kahon nang sa gayo'y hindi mabuksan ng mga bata ang mga ito.
- Illegay ang mga mabigat na bagay sa mga ibabang kahon.
- Langka ang mga muwebles at mga telebisyon sa mga dingding kung kinakailangan.

* Dami ng batang namamatay dahil sa mga aksidente ayon sa Istatistika Korea (Mayo 3, 2018)

Ikalawang Uri: Mga Aksidente Habang Nagsasagawa ng mga Gawaing Panlabas

Mga pagkamatay dahil sa pagkalunod



Mga aksidente sa paglulon

Ang pagkalunod ay ang ikatlong pinakamalaking sanhi ng pagkamatay ng mga bata kasundot lamang ng mga aksidenteeng pangtrapiko at mga aksidenteeng pagkawala ng hinlinga. Pinakamadalas mangyari ang mga pagkamatay sa pagkalunod sa paliligo ng mga batang mas bata sa ilang taong gul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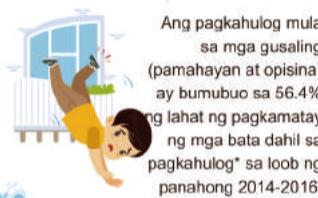
Mga aksidente sa paglulon



Kapag nakalunod ang mga bata ng mga butones, mga barya, mailiit na laruan, mga deterhente o mga tableta, maaari silang manatay sa pagkawala ng hinlinga o malason.

- Huwag mag-iwan ng mga mailiit na bagay sa tabi ng mga bata.
- Bago bumili ng mga laruan, surili ang kanilang mga markang KC at ang mga iminungkahiing saklaw ng edad.
- Itago ang mga gamot at mga pang-araw-araw na produkto ng kemikal matayo sa mga bata.

Pagkahulog mula sa mga balkonaha



Ang pagkahulog mula sa mga gusaling (pamahayan at opisina) ay bumubuo sa 56.4% ng lahat ng pagkamatay ng mga bata dahil sa pagkahulog* sa loob ng panahong 2014-2016.

- Huwag kailanman maglagay ng anumang puwedeng tuntungan ng mga bata sa balkonaha.
- Huwag kailanman payagan ang mga batang gawing palaruan ang balkonaha.

Dami ng batang namamatay dahil sa mga aksidente ayon sa Istatistika Korea (Mayo 3, 2018)

Ikatlong Uri: Mga Aksidente sa mga Pang-edukasyong Pasilidad

Habang naglalaro sa labas o nagsasagawa ng mga gawaing pampalakasan



Habang sumasakay ng mga makinang pangtaas (elevators) at sasakyen



Malapit ang mga bata sa mga pasa at bali sa mga pinto ng makinang pangtaas (elevator), mga umiikot na pinto at mga pinto ng sasakyen.

- Kinakailangan ang espesyal na atensyon ng tagapangalaga kapag sumasakay ng mga makinang pangtaas (elevators) at sasakyen.
- Kapag sumasakay ng sasakyen, siguraduhing nakasakay nang ligtas ang mga bata.
- Ikandado ang mga pinto at bintanang malapit sa inuuupuan ng mga bata upang hindi nila magalaw ang mga ito.

Pagkasakal dahil sa kurdon ng persyana

Maaaring masakal ang mga bata sa kurdon ng persyana (blinds) habang nilalaro ito dahil sa kuryosidad.



- Gumamit ng mga persyanang (blinds) walang kurdon hangga't maaari.
- Itali ang mga kurdon ng mga persyana (blinds) nang sa gayo'y hindi sila maabot ng mga bata.

Iba't ibang aksidente ang maaaring mangyari sa mga sentro ng pang-araw na pangangalaga, mga kindergarten at mga paaralan. Mahalagang surin ang kapaligiran at magsagawa ng tamang edukasyong pangkaligtasan upang mapigilan ang mga aksidente.



- Siguraduhing nakakagamit lamang ang mga bata ng matatalas na bagay tulad ng mga kutsilyo at gunting sa ilalim ng pangangasawa ng mga guro.
- Maglagay ng mga pangkaligtasan tampok sa mga kaganitan sa mga sentro ng pang-araw na pangangalaga, mga kindergarten, atbp.
- Kinakailangan magsagawa ng mga inspeksiyong pangkaligtasan nang regular.
- Magsagawa ng edukasyong pangkaligtasan para sa mga bata kabilang ang mga tunturing pangkaligtasan para sa iba't ibang sitwasyon at lokasyon sa pamamagitan ng mga larawan at kuwentong madaling masundan ng mga bata.

정부 재난지원금,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은 4일부터 지급,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는 먼저 지급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된다. 이후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2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계층은 4일 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이르면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 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된다. 5월 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지만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은행 방문신청도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나?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해당 가구에는 자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경기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 등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경기도 사는 4인가족이다. 우리 가족

80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87만원으로 변경됐다. 당초 4인 가족 기준, 수원시와 용인시의 지급계획안은 180만원이었으나 실수령액 167만1700원으로 변경됐으며 포천시의 지급계획은 300만원이었으나 실수령액 287만1700원, 의왕시는 160만원에서 147만1700원으로 변경됐다. 이 금액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자기가 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따라서 용인시에 사는 4인 가족이 4월에 80만원을 받았다면 5월에는 그 나머지인 87만17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 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다. 우리집은 2인가구인가 3인가구인가?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 개통 예정이며 조회도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이 사이

트에서는 가구 분류 및 금액 조회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

-현장접수가 폭증하지 않을까?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된다.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중국어 47면,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18면, 일본어 44면>

이지은 기자

2020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사업-배우자·부부 프로그램

다문화 배우자 . 부부프로그램

배우자(결혼이주여성,남편)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파주시 다문화부부 10쌍(20명)을 초대합니다.



1. 배우자 성평등 교육 <부부가 함께 참석, 총2회기> 6/13(토), 6/20(토) 10:00-12:00

-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 공감교육

2.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향상 <결혼이주여성, 총13회기> 6/3(수)-8/12(수) 13:30-15:30

- (부제) 4060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그녀들의 수다를 엿보다)
- 부부가 함께 마음 표현하는 글쓰기 배우기
 - 그리운 사람(남편, 본국 가족 등)에게 편지쓰기
 - 배우자와 함께 사진촬영 배우기(인생사진 찍기)
 - 사진에 담긴 가족 이야기 책 제작하기

3. 부부 문화체험 <부부가 함께 참석, 총2회기> 9/19(토), 9/26(토) 10:00-12:00

- 부부가 함께하는 LED 캘리무드등 만들기 - 라탄공예를 통한 부부인테리어 소품만들기



* 문 의 : 교육팀 정윤경 (031-949-9164)

*프로그램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未登录的外国人也可免费获得科罗娜检查，而无需强制出国。科罗娜19出现疑似症状时，即使访问地区保健所，也不能成为管制对象。

中央灾难安全对策总部宣布，将对外国工人的管制工作推迟一段时间，以便未登录的外国人可以享受检查治疗，而不必担心管制，强迫离职和检查费用。5月1日，中央灾难安全对策总部宣布了对因签证到期等原因可能丧失国内滞留资格的39万多名外国人采取防疫对策。不让患有科罗纳19症状的未登记外国人作为“安静的传播者”处于防疫死角地带。在当天的情况通报会上，中央灾难安全政策总部协调员金刚利说：

“因无资格滞留者和露宿者等因不安的居住，身份和情况等，即使出现可疑症状，也很难找到筛查诊所。“处于死角地带”，（未登记的外国人）不收集在使用保健所等医疗机构时留下的记录，即使以后重新进行管制，也不会利用该情报。”

这是基于《移民管制法》第92-2条的通知豁免系统。这项措施的执行是为了防止未登记的外国人在遭受人权侵害及犯罪侵害后，因害怕被强制驱逐而无法进行受害申报时，为防止利用这些手

段犯罪而实行。根据规定，未登记的外国人被怀疑患有科罗纳19症状，需到医院和保健所等，不会将患者的个人信息通知移民局。

此外，中央灾难安全对策总部宣布将对外籍工人的就业地点进行隔离环境检查。政府和地方政府合作检查工作场所的检疫环境，居住条件和社会距离准则，并通知雇主有必要排除和检查遗漏。决定以16种语言翻译和宣传科罗纳19测试处理系统的信息，主要是在人口稠密的地区，包括这些站点。我们还决定针对外国人的密集地区进行移动筛查，以便在必要时可以进行个性化处理。司法部，就业和劳动部以及两性平等和家庭部的呼叫中心人员将为保健中心的检查诊所提供支持，以支持非面对面的口译服务。

5月3日，保健福祉部向国民发送了包含上述内容的灾难短信。有症状的非法滞留外国人请打电话到1339或地区保健所咨询。<한글 기사 21면>

记者崔业吉

‘아빠와 집에서 함께 하는 DIY 체험 좋아요’

군포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통가족” 아버지교육 시행



군포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통하는 아이, 통하는 부모 “통통가족” 아버지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에서 가능한 DIY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군포건가다가에서는 참가를 신청한 다문화가족에게 온라인 아버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수료한 가정에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목공 체험 키트를 전달

했다.

“통통가족” 아버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은 “아주 유익한 교육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온라인 교육을 듣고 많은 공감과 반성을 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해야겠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다.

아빠와 함께 하는 목공 체험 활동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와의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성희 군포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 세계의 가정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온라인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동참하여 가족들과 함께 따듯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폐건전지, 종량제봉투로 교환

다문화가족도 환경보호 앞장

군포시는 5월 12일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외에 종량제봉투로도 교환해주는 등, 생활폐자원 보상교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만 교환해줬으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종량제봉투가 추가되어 새 건전지와 종량제봉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환 장소는 군포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이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주민편의 증진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관내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300여개의 의류수거함에 폐건전지를 버릴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적법한 의류수거함(관리번호 및 폐건전지 수거함 스티커 부착)이어야 하며, 아파트단지 내 의류수거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자원재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폐건전지 등 생활폐자원의 보상교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군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390-0453 최예지 기자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요”

군포건가다가, 가정의 달 가족사랑의 날 ‘천연비누 만들기’ 실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거주 2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장난감 넣은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했다.

가족 사랑의 날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

화하고 다문화, 비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교류하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군포건가다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응집력을 키우기 위한 DIY 체험 활동을 기획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천연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20가족은 “손 씻을 때 필요한 비누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항상 파이팅 넘치는 우리 가족 고맙고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 사랑해!”, “늘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 사랑하며 또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합시다!”,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와 같은 가족 응원 문구를 남겼다.

박성희 센터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부부의 날, 어

버이날, 한부모 가족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는데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모 교육과 가족문화 콘텐츠를 고민 중이다.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월1회, 가족 구성원 간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양육상담, 가족문화프로그램, 아이돌봄지원사업, 육아나눔터사업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인터뷰

박성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리 공동체는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게 될 것

박성희 센터장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사업, 심리정서 지원 노력 충실히 할 것”



▲ 지난해 9월에 개최된 한가위 축제, 왼쪽에서 네번째가 박성희 센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시름도 깊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올 초부터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정부 권고로 인한 휴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대면 지원 및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센터의 기본 사업 역시 모두 잠정 연기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군포를 비롯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성희 센터장(지난해 11월에 개최된 다가온 개소식에 참석한 박성희 센터장, 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에게 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노력을 들어봤다.

Q.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A. 센터는 정부의 휴관 권고에 따라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럿 개발했다. 현재 프로그램 일부를 진행 중이다.

또 휴관 기간을 활용해 센터 소속 직원이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근래에는 방문지도사와 기타 센터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가족상담 서비스는 전화와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관리 중이다. 군포시민과 결혼이주여성의 코로나 블루 증상에 대비한 심리정서 지원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적극적인 상담 사업 홍보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Q. 그간 군포시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A.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이용자 및 실무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방문객과 실무자의 발열 상태 및 손소독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센터 본원 및 카페, 다가온, 공동육아나눔터 등 관련 시설은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더불어 센터 휴관 안내 및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다문화가족에게는 해당 정보와 센터 사업 진행 상황을 다국어로 안내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입출국 정보를 체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자주 확인하는 편이다. 또 센터 실무자와 아이 돌봄 활동가, 방문지도사 등은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별도 지급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을 전하는 블봄 마스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에 마스크 제작 키트를 발송하고 이들이 집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다시 전달받아 소외 계층 등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203개 수량을 제작했고 70개는 취약계층에, 133개는 지역 내 운수회사에 전달했다.

Q.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부모교육이나 아버지교육 등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사업은 콘텐츠만 만들어진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여러 가족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던 문화 프로그램 중 일부도 가정 안에서 가족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후 가족 간의 관계나 참가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있었는가, 센터의 프로그램이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비대면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사업 등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절하고 2m 거리두기와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안전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는 조건 아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Q. 임시휴관 장기화로 센터가 다문화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센터 차원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었나.

A. 보육 시설 및 학교 등이 장기 휴교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다문화가족이 적지 않다. 대면 서비스로 진행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수업 진행

이 어려워진 것도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다. 최근 각 지역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개학 소식이 들리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중에서는 온라인 학습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곳도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수업이나 언어 발달 교안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게 학습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별도로 다문화가족이 자녀의 온라인 개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문지도사와 센터 실무자가 가정으로 방문해 도움을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최근 ‘가족과 함께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개발해 제공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족 유일무이 케이크 만들기’ 사업이 있었다. 센터에서 제공한 재료로 가족끼리 케이크를 만들면서 과정과 소감 등을 기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 ‘통하는 아이, 통하는 부모’에서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목공 활동 키트를 전달했다. 목공 활동의 과정 및 소감 또한 케이크 만들기 사업과 같이 진행 일지 형식을 제공해 받았다.

Q. 코로나 사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

A. 아무래도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그간 대면식 집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많았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하고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좋겠다.

Q.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 다문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A.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동시에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각 나라별 대응 방식과 행동 양식 등을 접했고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세계인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근래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 대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다.

정리 최예지 기자

I. 学校入学について

・児童が韓国で生まれた場合または
韓国籍を有する場合

年齢(満)	学校級
3-5歳	<p>幼稚園入学 [保護者が準備すべきこと]「チョウムハッキヨロ(www.go-firstschool.go.kr)」ホームページから願書提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月頃 (幼稚園によって異なる)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各幼稚園の児童募集要項確認 ※ 多文化家庭の児童が記述時に募集しているかどうかは、当該幼稚園の募集要項を確認 ・願書を提出し、受付証を確認(プリント可能) ・抽選結果を確認し、登録 ・オリエンテーション、予備招集などに出席 ・追加募集への登録と結果確認 ・幼稚園に登録 ・オリエンテーション、予備招集などに出席 翌年1~2月 3月初旬 ・入学式
6-11歳	<p>初等学校入学 [保護者が準備すべきこと]就学通知書を受領し、それぞれ必要な入学準備を行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入学期日を含む年の前年の12月20日まで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就学通知書を受領:管轄邑・面・洞の長が通知する(入学する学校と入学期日などを明示) ※ 管轄邑・面・洞の長は、入学予定の児童の氏名・住民登録番号・住所、保護者の氏名・生年月日・性別・連絡先が記された名簿を作成して、就学児童が入学する学校の長へ通知する。 ※ 外国籍の学生には、就学通知書が発給されない。 1月~2月 3月初旬 ・学校別予備招集:入学案内 ・入学式
12-14歳	<p>中学校入学 [保護者が準備すべきこと]なし(開設手続き、書類などは一括して初等学校が準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月中旬 1月下旬 2月中旬 2月中旬~末 3月初旬 ・入学式
15-17歳	<p>高等学校入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般高校(自律型私立高校を含む) ・特殊目的高校:外國語高校, 国際高校, 科学高校, 藥科高校, 体育高校 ・特徴化高校:特性(職業), 特性(代用),マイスター高校 ・その他の学校:英才学校 ※ 高校の種類や市・道教育庁によって入学選考方法, 志願時期などが異なる。 ※ 「高校入試情報ポータルホームページ(www.hischool.go.kr)」で要確認
18歳以上	<p>大学(校)</p>

1) 幼稚園入学管理システム「チョウムハッキヨロ(www.go-firstschool.go.kr)」を利用する事が困難な場合は、幼稚園を直接訪問して入学願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幼稚園入学願書提出

・提出時期

・地域や幼稚園によって多少の違いはありますが、一般的に10~11月に翌年度の新入生を募集します。

・提出方法

・幼幼稚園の入学願書の提出はオンライン受付と訪問受付の2つの方法があり、最大3か所の幼稚園に志願することができます。

- **オンライン受付:**両親(保護者)が直接「チョウムハッキヨロ」ホームページを通して願書を提出

- **幼稚園訪問受付:**希望する幼稚園を訪問して幼稚園へ願書を提出

(私立幼稚園の場合は、訪問受付のみ実施する場合もあります。)

・願書提出は、優先募集と一般募集に分けられますが、優先募集対象者として多文化家庭の児童が含まれ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幼稚園へ確認が必要です。

・多文化家庭児童の確認などのため幼稚園が追加書類提出を要求す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必要書類は募集公告をチェックするか、または幼稚園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園児選抜と登録

・園児選抜は先着順ではなく、志願者数が募集定員を超過した場合は、抽選で選抜されます。選抜結果は、「チョウムハッキヨロ」ホームページ、または個別連絡を通し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志願した幼稚園すべてに選抜されなかった場合や選抜された幼稚園への登録を辞退した場合は、募集人数を満していない幼稚園に追加で登録することができます。

・幼稚園登録が最終的に確定したら、両親(保護者)対象の予備招集やオリエンテーションなどを通じて幼児の幼稚園入学にあたり知っておくべきことを案内してもらいます。

入学準備

・入学準備は、両親がすべきことと幼児にしてあげるべきことに分けられます。

・**保護者が準備すべきこと:**教育費支援対象者の確認、入学関連追加書類(幼稚園によって共働き家庭の場合の放課後課程の申請書など)、写真、予防接種と健康検診確認書、その他幼稚園が要求する準備物の確認などです。

※ 入学前の保護者オリエンテーションには必ず出席して、十分な説明を受けてください。預め幼児と入学する幼稚園を訪れて、雰囲気に慣れることもスムーズな適応につながります。

・**幼児にしてあげるべきこと:**安全な生活についての案内、両親(保護者)と離れていたる分離の訓練、友達とのふれあい、基本的な生活習慣(トイレトレーニングや食事マナー)の訓練、通学バス利用時に注意すべき点の案内などです。

01 幼稚園の入学手続き案内

幼稚園の種類

- ・国立幼稚園:国が設立・経営する幼稚園
- ・公立幼稚園:地方自治体が設立・経営する市立・道立幼稚園
- ・私立幼稚園:法人または個人が設立・経営する幼稚園

入学対象

満3歳~初等学校就学前の幼児は幼稚園に入学できます。

入学時期

- ・新学期入学:幼稚園の学年度は3月1日から翌年2月末までで、幼稚園入学は一般的に3月に行われます。
- ・非定期入学:幼稚園の条件によって非定期入学も可能で、幼稚園へ問い合わせて児童の入学可否を確認できます。

入学手続き

幼稚園の入学申請受付から登録までのすべての手続きは、幼稚園入学管理システム「チョウムハッキヨロ」ホームページ(www.go-firstschool.go.kr)で行います。



Tips

私の町の幼稚園探し

・各地域の幼稚園情報は、「幼稚園入学管理システム(チョウムハッキヨロ)」または「幼稚園アリエミ」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各地域の幼稚園状況だけでなく、幼稚園の入学時期・方法、教育課程の運営などに関する情報も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

・チョウムハッキヨロ(www.go-firstschool.go.kr):幼稚園の入学を希望する両親(保護者)が、時と場所を選ばずオンラインから便利に幼稚園情報を検索・申請して選抜結果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幼稚園入学システムです。

・幼稚園アリエミ(e-childschoolinfo.moe.go.kr):地域別の幼稚園状況や運営情報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幼児教育機関を選択する際は、下記の4つの条件を考慮す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 ・[位置] 自宅や保護者の職場から近いところ
 - 通園距離が遠いと、児童は身体的・精神的にストレス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 ・[教育哲学] 保護者の教育哲学に合うところ
 - 幼稚園によって教育哲学が異なるので、どのような教育プログラムに重点を置いているかを確認してください。
- ・[施設] 安全と衛生状態が良好などころ
 - 幼児が半日以上の時間を過ごす場所なので、安全と衛生、様々な活動ができる空間があるかどうかよく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 ・[教師] 相互作用がスムーズな教師
 - 幼児の発達のためには、肯定的な相互作用を行える教師がいることはとても大切です。

参考 幼稚園教育課程の運営

学期と学級構成

・幼稚園の学期は年間2学期に分けて運営されます。

・1学期:3月1日(3月1日は祝日なので、3月2日から授業開始)から幼稚園の授業日数、休園日、教育課程運営を考慮して幼稚園の長が定めた日まで(一般的に8月中旬~下旬)

・2学期:1学期終了日の翌日から翌年2月末日まで

・幼稚園の教育課程は1日あたり4~5時間運営され、放課後課程では預かり保育やその他の教育活動が提供されます。

・幼稚園の条件や教育方針によって満3歳クラス、満4歳クラス、満5歳クラスの単一年齢クラスまたは混合年齢クラスで編成されます。

授業日数と出席

・幼稚園の授業日数は、毎学年度180日以上を基準に各幼稚園の長が定めます。

教育課程(メリクリー)

・幼稚園の教育課程を「メリクリー」といい、満3~5歳の幼児の心身の健康とバランスの取れた発達をサポートして、民主市民の基礎を形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年間・月間・週間・1日計画に従って運営され、満3~5歳の幼児の発達特性を考慮して年齢別に構成されています。

・幼児の発達特性と経験を考慮して、遊びを中心とした5つの分野(身体運動・健康、コミュニケーション・社会関係、芸術経験、自然探求)を統合的に編成・運営します。

1日の日課

・初・中・高等学校とは異なり、幼稚園には教科書がありません。幼児の発達特性に合わせて遊びを中心で教授・学習活動が行われます。

・1日1時間以上の自由選択活動と外遊び時間、大・小集団活動(美術、ゲーム、料理、歌など)、現場体験などで1日の日課が構成されています。

幼稚園の1日の日課表(例)

教育課程	09:00 ~ 09:10	登園、互いに挨拶
	09:10 ~ 10:10	遊び計画と自由選択活動
	10:10 ~ 10:30	整理整顿と自由選択活動の評価
	10:30 ~ 10:50	おやつ
	10:50 ~ 11:10	コミュニケーション
	11:10 ~ 12:10	外遊び活動
	12:10 ~ 13:10	昼食と休息
	13:10 ~ 13:30	大・小集団活動
	13:30 ~ 13:50	大・小集団活動
	13:50 ~ 14:00	1日の評価、帰宅
放課後課程	14:00 ~ 17:00	預かり保育及びその他の教育活動

6월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



광명시는 6월부터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2300여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존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5월 7일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시민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소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재난기본소득, 올바른 거래 당부

광명시는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월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는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인 8월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물가모니터요원 6명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민 제보 및 조사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례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시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예지 기자

광명 시민 학습동아리 지원 다문화가족도 평생학습 참여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관내 154개 시민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5월 7일 밝혔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지난 3월 하안동 철망산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 시설 이용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154개 동아리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 공간을 대관하기로 했다.

학습동아리에 대관하는 시설은 △일반학습실 7개 △소리실 2개 △미술세상 2개 △정보화배움실 2개 △무용실 1개 △시민의 부엌 1개 등 총 15개실로 학습 특성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습 공간을 배정받은 동아리는 오는 12월까지 ‘1개 동아리당, 주 1회, 최대 2시간’ 학습모임방을 이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원 소속일 경우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원 소속이 아닌 경우는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대관료가 있다.

배정 후 남는 공간은 시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수시 대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원 누리집(<https://lll.gm.go.kr>)을 참고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평생학습원 공간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Последствия массового заражения в Сеуле, Итевон-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перенесено на неделю. Итаевон 집단 감염 여파로 등교 1주일씩 다시 연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ъявило, что дата начала занятий в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3 классы будет перенесена на одну неделю с 13 мая (ср.) на 20 мая (ср.), а так же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в других учебных классах также будут перенесены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 одну неделю.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ещение школ учащихся старших 3 классов была перенесена на 20 мая; с 27 мая школу начнут посещать ученики старших школ 2 класса, средние школы 3 классы,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ых школ 1~2 классы и детсады; с 3 июня старшие школы 1 классы, средние школы 2~3 классы,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3~4 классы; с 8 июня средние школы 1 классы и начальные школы 5~6 классы.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4 мая оповестило факт: При объявлении метода (проекта) периода посещаемости школы,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удентов была приоритетом,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из-за ситуации с вирусом, в случае н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щения школ, тесно содействуя с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и полномочными органами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 план быстрого действия."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 86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1 мая) был подтвержден вирус

с,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й по Итэвон-донг, Юнсан-гу, Сеул, из них 63 случая были подтверждены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клуба Itaewon, а 23 случая были заражены как в очный контакт (семья, знакомые и коллег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уществует высокий рис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К тому 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еула было выявлено число посетивших данный клуб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го периода-5.517 человек, из них после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было выявлено всего 44% (2456 человек), возникла трудная задача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й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Лица с подтверждённым диагнозом проживают в 17 районах из них в 6~8 районах вирус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эт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вирус обшир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регионам.

Поскольку график посещения школы был перенесён,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стар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лее строгую систему шко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До начала посещения школ дистан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без затрудн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мы приложим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учащихся в период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т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тест, посетив ближайшую определённую клинику, лицам которые с 24 апреля по 6 мая посети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на Итэвоне (клуб, таверна и т. д.), а так же работников школ,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адиусе маршрута передвижения заражённого даже если нет признаков вируса.

К тому же,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ицам, скрывающим факт посещения или контакта и в итоге не прошедшим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ами ожидается строгое наказа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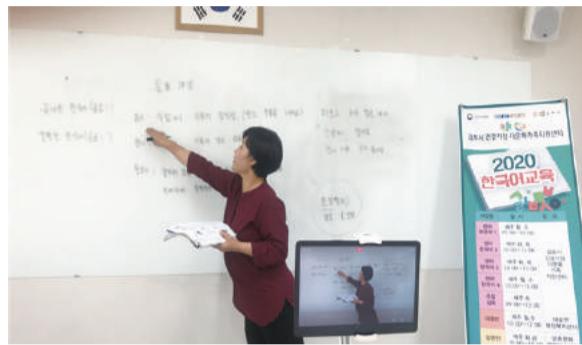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Ю Ын Хе заявила: "Пу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начиная с Итевона смутны, уровен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елик,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итуациярезко изменилась по отношению когда ранее 4 мая было выдвинуто решение о начале посещения школ".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удентов и права на обуч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арантинной службой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мнению школ."

〈한글 기사 18면〉

장울가 기자

“김포 다문화가족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시작됐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확산 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5월 6일부터 한국어교육을 온라인으로 개강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단계별 한국어 4반으로 나누어 월~목 오전, 오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위한 주말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민은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수업은 어플 카카오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1팀에 문의하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안월순 강사는 “처음 진행하는 동영상 강의가 많이 낯설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이 뜨거운 만큼 열심히 공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기다려준 결혼이민자들과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온라인교육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온라인 수업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하루 빨리 센터 교육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수업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밝혔다.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우리가족 추억 속으로 가족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추억과 행복을 주제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본 공모전은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네이버 오피스폼(naver.me/GVbGxeqU)로 신청하고 사연과 함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총 5점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며 시상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 각종 기념일 행사시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 제작시 활용하여 의미 있게 활용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들도 가족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이번 공모전에 제출해 보자.

이지은 기자

“무지개 세상! 무지개 선생님!”

김포건가다가, 다문화이해강사 봉사동아리



사이며 또한 시립양재어린이집 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1회기에는 다문화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이해, 강사의 역할 및 자세, 대상별 국가별 이해교육 등의 내용을 통해 무지개선생님으로써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2회기에서는 교재교구 및 교안만들기(ppt 만들기 및 공작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어 3회기에서 다문화교육의 교수법, 무지개 교사로서 자긍심 갖기의 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배우고 무지개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무지개선생님 전문교육을 받은 한 선생님은 “전문교육을 통해 나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무지개처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무지개 선생님으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지개선생님들은 사랑과 자긍심을 가지고 풍성한 내용과 전문적인 기술로 교육현장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가 다문화이해강사 봉사동아리 “무지개선생님”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3회기를 진행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지원하는 ‘2020년 동아리모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에 늘어나는 관내 교육기관 수요에 맞추어 결혼이민자 봉사동아리 단원이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출신국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3회기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박화문(전)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자 한국건강가정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

 여성가족부 대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GIMPO

5월 가정의 달 가족사진 공모전

우리가족 추억 속으로 GO!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중인 김포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족 추억사진을 보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대화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아래 예시처럼 소중한 가족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엿진 부모, 행복한 자녀! (예시1)

•잘된 자녀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출산후 겨울이라 외출도 못하고 답답하여 3개월된
딸과 함께 실내식물원인 서울식물원 나들이 갔던
사진입니다.



•언제 3살이 된 딸은 양곡어린이술체험장에서
우리부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씩씩하게 걷는 딸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서 육아
및 가사분담도 함께 나누며 이겨내고 있답니다^^!

- 접수 기간 : 2020.5.5(화)~2020.5.31(일)
- 대상 : 김포시거주 가족 누구나
- 접수 방법 : 네이버 오피스폼(<http://naver.me/GVbGxeqU>)
- 참가 특전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5가정)
- 문의 및 신청 : 031-996-5923 (가족사업2팀 선임 박경희)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은 기자

Note

Hau suporta mehi traballador estranjeiru sira nian

Estranjeiru Sistema Autorizasaun ba emprego

Timor-Leste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06 labele haluha asuransi nebe ita-nia rai !

Apa itu asuransi khusus WNA?

Patraun Subskrisaun Seguru

Divizaun	Salaru asuransi endemity	Maturidade outbound insurance Fiar
Objetivo husi introdusaun	Traballador estranjeiro Prepara ba kolen ne 'ebé la hetan selu	Distribuisaun no severance selu Reduce todan kona-ba pagamentu
Untuk	empregador	
Berlaku	-Fatin servisu nebé la hetan Salariu Reklame Garante Asurau ho -Fatin Servisu nebe ho traballador menus husi 300	Traballador ida nebé regular
Exesau aplikasaun	Esesau empregu ba traballador estranjeiru sira-nia aplikasaun (Artigu 12 (1) (1) nian, hanesan)	
Benefisiáriu asuransi	Traballador estranjeiru	
Razaun pagamentu	-Pagamentu bainhira la hetan pagamentu saláriu patraun -Hosi fatin servisu, sai Se lisensa empregu mak taka Pagamentu unearned premiums nonpremiums, exklui premiums	Liu husi tinan 1 iha servisu Traballador estranjeiru sira ne 'ebé serbisu la husik hela Partida (esetu partida temporária)
Prosedimentu aplikasaun	Hare pajina 14	Hare pajina 16

6-2 Asuransi kanek

saida mak asuransi kaben?

Kanek insurance mak seguru sira-ne 'ebé mak traballador estranjeiru tenke tama kazu mate ka moras ne 'ebé servisu husu ajuda.

Garantia ida-ne'e mak hanesan tur mai ne'e.

Kanek no seluk kanek seluk asidente servisu fatin *: to'o tokon 30 won
Moras seluk asidente profisionál, nivel aas kona-ba inkapasidade **: to'o tokon 15 won

* Obretrasaun lutan (follow-up): Se moras labele Kura depois halo tratamento tanta kanek
** Sa! Runguranga: Estadu Idia nebé iha defisiénsia isin naefin inkapasidade tanba moras ka dezaestre, no nia mate-isin nian funsaun mak lakon kompletamente ka ultoan teblebes

Bele aplika ho dokumentu sira nebé tur mai ne'o.

Aplika husi telefone ba Tablet Fuzileiru & Ahi Bolu Sentru ho dokumentu sira nebé tur mai

Iha tempu nebé mate

Bainhira fallansu

① Seguro aplikasaun forma ② Sertifikado mate ③ Konfirma relasaun Família ④ benati-Tuir kona-ba kartaua kona-ba ema sira nebé hada'et: kartaua ka pasaporte copy kona-ba ema hotu-hotu hada'et tur susesaun (kartau ID inklui fotografia presiza cópia ida ba oin no kotuk) ⑤ Designated poder advogadu nian ne 'ebé hili hosí representante sira atu simu ne 'ebé ninia: liman-rohan ida nomeia representante bei-oan entre inheritors tur nasau susesaun ⑥ banati-Tuir nian passbook representativu sira atu simu ne 'ebé ninia: Se tradus ba Iian-Inglés, apresenta iha Iian Inglés ⑦ Advogadu nian Podér

① Forma aplikasaun asuransi
② Copy Kartaua ID: pasaporte ka kontradisau no kartaua rejistru
③ Liu médiiku sertifikado

05 Saida mak Akontese se imi iha ona sexually abuzivu ka molested?

Saida mak violencia seksual

Kualkér alividade seksual ne 'ebé viola nimigu sira-nia intensaun atu auto-determinasaun hosiuza differensa poder hason seluk nian intensaun
-Iha sentido ida kloot, na refere ba violasaun seksual no raptu fonsadu, ne 'ebé bele fó kastigu ba autór violénsia sexual lei

* Iha tinan hirak ikus ne'e, se imi halo ne'e ba ita-nia nimigu na médiku, ita bele rekoifese nu'udar violasaun seksual ka halo violasaun seksual, maske la involve assalu.

Ita boot kontfijaun ho abuzu seksual no violasaun seksual?

① Asaltu seksual

-Tipu abuzu seksual ida nebe signifika estraga ou koku ato estraga/perkosa

② abuzu seksual

-Seksual apostolu seluk fali sala-fo'er (abuzu seksual iha kazu asaltu ka intimidasaun)

③ Abuzu seksual

-Asaun sira ne 'ebé iha asaun hotu-hotu nebé halo sentimentu seksual kiak no repulsau ba vitima hosi intercourse seksual, sst., no abuzu seksual iha servisu fatin mak principally tanba differensa iha poder hanesan servisu no empregu.

Prevene abuzu seksual hanesan tur mai

Tama relatorio krimi 112 iha telemóvel shortcut xave 0 Hase'e-an hosí bá iha kalan ka ha kalan, no husu ta-nia belun sira atu sai se rekonsruksaun.
-Ema ida la matan ba hanor ema seluk ebé la halene taka odamatan ho janesal metin, instal kona ba seguransa bainhira hatene katak interupsaun husi gás pipelines asuransi uza atu para kareta (felo de't, rezidénsia para matadalan, instalasaun CCTV, nst), nebé para besik ona odamatan atu tama ka elevator
-La uza taxi ho ema ne 'ebé imi la hatene.



Bainhira asaltu seksual akontese, halo hanesan tur mai

Halai ba fatin ida nebé seguru bainhira abuzu sexual Relata ba polisia kendas
-Bolu ajuda iha Migrante Feto Emerjénsia Apelu Sentru (④ 1577-1366), Feto Emerjénsia Bolu (④ 1366)
-Se imi mak kanek, fase ka Bá ospital ka stasaun polisia la muda, no kontinua evidénsia iha saku Surat tahan ida

6-1 Saláriu asuransi ganti rugi

Saida mak saláriu asuransi ganti rugi nebe iha?

Se imi la simu pagamentu nebé inklui reforma subsidiu, ita iha direitu ba kompensasaun

Garantia ida-ne'e mak hanesan tur mai ne'e.

Montante neebé selu kontajen-tokon 2 won Kona-ba reforma subsidiu, differensa entre simu autorizasaun nian terminasaun benefisia pagamentu

Prosesu aplikasaun mak hanesan tur mai ne'e

Simu forma pagamentu la fo fila no aplika ba asuransi

Simu notifikasiun kona-ba pagamentu saláriu ba Ministériu kona-ba Empregu no Trabalu Had'a Orientasaun Departamentu tarde

Reklamasau asuransi osan iha Seul Garantia Seguru Co., Ltd.

Ha'u presiza dokumentu sira nebé tur mai ne'e.

copy ida kona-ba aplikasaun insurance forma, kópia ida ba passbook (narán kandidatu selecionadu ebé)
copy kartau identidade (pasaporte ka kontradisau maské rejistru kartau)

Konfirmasaun fár ida nebé (husi Ministériu Empregu no Trabalu nian)

Seul (Adisionál dokumentu nebé presiza ba revizaun kompensasaun)

1350 Kona-ba Empregu no Trabalu Konsulta Sentru ④ 1350 02-777-6669 Seul Garantia Seguru, Bolu Sentru SGI ④ 02-777-6669

6-3 autorizasaun nian terminasaun asuransi

Saida mak periodu tempu seguru?

Asuransi maior husi entidade patronal naran subsidiu apoentasaun ba traballador estranjeiru sira, no estranjeiru sira ne 'ebé selu ba differensa entre subsidiu reforma no beneficiu terminasaun peridu husi entidade patronal

-Expatriate periodu asuransi ne'e la positivel atu selu iha Korea (Se karik ita serbisu iha fatin negósiu rua ka lu tan, imi sei simu beneficiu partida no terminasaun kuando imi sai husi nasau ne'e)

* Se ita serbisu menus husi tinan 1, iaiha subsidiu ba osan saláriu

Garante (selu taxa) mak hanesan tur mai ne'e.

-Hosi data ba pagamentu ikus (husi 17.17.15 hahú)

menus fulan 12	prinsipal
Liu fulan 12	100.5%
liu fulan 24	101%
Liu fulan 36	101%
Liu fulan 48	102.3%

Ha'u sei aplika ba periodu loron

Haofin halo selesaun ba banku aeroporto ida uluk, vizita diretamente ba banku no hasai "Negósiu kona-ba Interkâmbiu Banku Sertifikadu" interkâmbiu

* entrada banku aeroporto : (Incheon Aeroporto) Shinhan Banku, Hana Banku, Woori Banku / Banku Shinhan (Kimhae Aeroporto)

Dokumentus nebe persija

① Emisaun ba asuransi ida reklama katak orden pagamentu haofin aplika ba osan nebé asuransi ba kompania privadu Forma asuransi afirma Katak: as Forma asuransi sira-na Aplikasaun, Konfirmo Estatuto sailexit*, deklarasau kona-ba interkâmbiu Negósiu banku, kartaua rejistru holi rai-l'ur sira, copy pasaporte
② Loron partida, iori ó-nia pasaporte, ticket no pagamentu asuransi instrusaun ba aeroporto nebé ita holi bainhira sira aplika ba seguro no "simi ida moeda interkâmbiu"
③ Haofin inspesaun imigrasaun, imi sei aprezenta ho ida "moeda interkâmbiu simu" iha eskrifiru troka osan nian, iha loja duty live. Charger yang terletak di dalam toko bebas beat/duty free shop.

* Nebé aplika ba reklamaasaun ida ba kompania asuransi Dokumentu sira nebé báziku ba aplikasaun asuransi ; forma aplikasaun Seguru, konfirmo partida sira, copy kartaua rejistru holi rai-l'ur sira, copy pasaporte
-Dokumentu sira nebé adisionál ho metodu resepsaun Transferénsia hirak nebé lokal: Kopia konsiderasaun local debe direta ba banku lokal: La iha dokumentu adisionál Konsiderasaun ba rai ida: Negósiu kona-ba interkâmbiu banku dezignasaun

* Konfirmasaun data partida : Se traballador ida-ne'e hakarak atu sai hosí nasau ne'e tanha periodo perido pe ida ne'e hela ka hela, serbisu na-in se aprezenta "partida notifikasiun forma" sentru empregu ba to'o iha fulan ida molok data partida marka, husi Resepsaun

인터뷰

김연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사업과 돌봄영역 확장으로 코로나 극복한다

김연화 센터장 “가족구성원 참여하는 가족문화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비대면 서비스 확장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시름도 깊다.

하지만 김포를 비롯한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연화 센터장(사진,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김연화 센터장,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노력을 들어봤다.

Q.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A.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사태 와중에도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긴급물품배부, 원격학습지원 등 돌봄서비스 강화와 비대면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지만 긴급돌봄 사업으로 인해 전체사업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센터 내 종사자 경력(전직 어린이집 교사, 언어재활사)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문적인 접근으로 돌봄운영을 할 수 있었으며 아이돌봄팀과 연계하여 돌봄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다. 통번역 인력 및 가용인력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 역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Q. 다른 센터와 달리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A.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지 않나. 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돌봄시설로 전환해 공동육아나눔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

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2명의 돌봄인력 외에 기존 센터 인력에 TF팀을 결성해 통번역, 부모상담, 언어치료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구비해 긴급돌봄 참여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개학 이후 센터는 초등학생 3명에게 태블릿pc를 이용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와 초등을 나누어 배치하고 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돌봄인력을 유아 3~4명당 1명, 초등학생 3명당 1명으로 연령별 그룹으로 배치하고 있다. 더욱 위생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Q.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한 센터의 방역 및 기타 노력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센터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센터 자체 소독은 매일 1회씩 하고 있으며 전문 방역업체에서 1달에 1~2회 센터 내 살균소독을 실시했다. 김포시 자체적으로 시설 소독을 1회 한 바 있다. 마스크는 센터 자체적으로 7,315개의 마스크와 249개의 손소독제를 확보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179명 전원에게 2종 방역용품(마스크, 손소독제)가 담긴 꾸러미를 긴급 지원했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Q. 현재 대부분의 센터가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센터 프로그램과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대면서비스 제한으로 행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단계를 구분하여 보드게임, 편지백, 줄넘기, 캔식물 키우기 등 가족단위 키트 제공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5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했다.

온라인 교육은 어플 카카오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센터 회원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한국어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또한 높다. 만족도 조사 관련, 비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가정에서는 꾸러미 이용 후 간단한 소감 및 활동사진을 개인 SNS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회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Q. 센터 입시휴관 장기화로 다문화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센터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앞서 얘기한 대로 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 긴급물품배부, 원격학습지원 등 돌봄서비스 강화와 비대면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례관리대상 40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1차로 보낸 생필품은 쌀, 과자, 라면 등으로 구성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위기가정에 사례담당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 바 있다.

Q.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나?

A. 실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진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집합교육 및 홍보물품 전달 등의 비대면서비스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Q.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해달라.

A.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이나 당국의 발표, 실시간 현장 소식, 기사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다소 어려운 편이어서 정보소외가 되기 쉽다. 마스크 판매처 및 선별진료소의 접근이나 지역별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기본적인 지침도 숙지하지 못한 가정이 많으며 이를 위한 다국어 번역본 배포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으로 인해 상호간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서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갈등 조장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김포시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달려왔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어질 것이다.

정리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Gwacheon

과천 다양한 가족의 행복, '우리 가족 행복 포레스트 찾기'

과천건가다가, 코로나 예방 위해 비대면 방식 진행 '큰 호응 얻어'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성장지원사업의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 행복 포레스트 찾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과천건가다가에서 기획한 '우리 가족 행복 포레스트 찾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가족 행복과 관련된 4가지의 세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한 활동 키트를 각 가정에 택배로 보냈다. 참여 가족의 이해를 돋기 위해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촬영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기도 했다. 키트를 수령한 참여 가정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토대로 세부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별 인증 사진을 촬영해 가족 앨범에 업로드했다.

[미션1-과거 속 행복 찾기]는 각 가정이 가족 앨범 속 행복한 기억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션2-과거 행복에 대한 오늘의 감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6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7일째에 작성한 감사 일기를 교환해 공유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미션3-오늘의 행복 만들기]는 가족 행복 공간을 선정하여 해당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행복 공간을 장식하는 네온사인 간판 만들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미션4-온라인 우리 가족 행복 나눔 전시회]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네이버 밴드의 댓글 기능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채택했다.

과천시건가다가에서는 참여 가정들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별 맞춤 일정을 세웠다. 또 어린이 날, 어버이날 기념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참여 가정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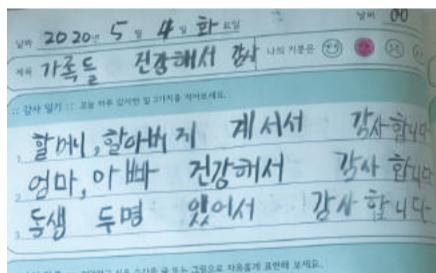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둥이라 신경을 쓰기 어려웠는데 큰애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에 센터 종사자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가정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참

가자와 진행자 사이에서도 활발한 소통이 일어났다. 다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모쪼록 가정 내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건가다가에서는 오는 5월 말부터 영유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책놀이로 하는 한 지붕 두 언어 엄빠표 오디오북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센터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총 7가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503-0070)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천의 행복가족지원센터"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	참여대상	일정	내 용
아 이 돌 봉 지 원 센 터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래미안스루/부림동)	관내 및 벌이 가족 초등학생 자녀 유아~초등학생	1월~12월 (연중)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긴급보육 돌봄 및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공간 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관내 만3개월~ ~만12세 이하 아동	연중	- 아이돌봄 활동가를 통한 자녀 양육 돌봄 서비스 지원 (기본)1회 2시간 이상
	증일제 돌봄서비스	관내 만3개월~ ~만36개월 이하 영아	연중	-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돌봄서비스 지원 (기본)1회 3시간 이상
	종합형 돌봄서비스	관내 만3개월~ ~만36개월 이하 영아	연중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 활동 범위 아동과 관련한 가사 주거 서비스 (관련 세탁물, 놀이 공간 정돈, 간식 조리 등) (기본)1회 2시간 이상
	학습돌봄서비스	관내 초등학생(1~6학년)	연중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돌봄활동가의 초등학생 전 과목 학습지원 - 이용시간 : 선생님과 사전 협의 하의 진행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관내 만3개월~만12세 이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연중	-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보육 시설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1회 2시간 이상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40명	5월 16일, 23일(토)	- 아이돌보미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8시간)과 심화교육(8시간)
부모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전자적 가족 되기'	자녀를 둔 부모	5월~6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 부모~자녀 기질 유형 검사, 강사 및 상담사 와 부모 간 1:1 양육 멘토링, 기질 유형별 자녀 양육 방법
가족	"Cheer Up!!. 나 그리고 우리"	2년 이상 입신과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부부	6월~11월	신체 및 심리·정서 지원, 대처능력 강화프로그램 - 부부 이해 및 소통프로그램 - 입신 및 출산, 난임 이해 프로그램 - 부부 술 체험 등 활동 프로그램 - 가족 데이 캠프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천의 행복가족지원센터"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	참여대상	일정	내 용
가 족	가족사랑의 날	관내 거주 및 재직 중인 20가족	5월 18일(월)~ 22일(금)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는 유화 페인팅
	가족 품앗이	관내 거주 및 재직 중인 10가족	5월 4일(월)~ 22일(금)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캠페인 우리 가족 집집 꿀팁 대방출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및 성인	5월~12월 (연중)	- 유아, 놀이, 생태, 학습 등 자유로운 주제에 품앗이 활동 진행 - 2020년 가족 품앗이 회원 모집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전화상담 운영
	가족 사례관리	가족	1월~12월 (연중)	가족을 위한 개인 및 가족상담 건강, 경제,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의 문제해결지원을 위한 자원 및 전문 서 비스 연계
대 민 화 가 족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4월~12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 과정별 원격 한국어교육 (토픽 듣기, 토픽 읽기, 토픽 쓰기, 자녀 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 취업을 위한 한국어, 지 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자녀성장지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자녀	4월~5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우리 가족의 행복 포레스트 찾기 (과거 행복 찾기, 과거 행복 속 오늘의 감사 일기 쓰기, 행복 포레스트 이를 짓기와 네온사 인 명패 제작, 온라인 행복 나눔 전시회)
	이중언어환경조성	영·유아기 부모와 자녀	5월~6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이중언어의 규정성과 언어발달의 적기성 및 책 놀이교육, 책 놀이로 하는 한 지붕 두 언어 엄마·아빠표 오디오북 만들기
	서포터즈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1월~12월	서포터즈 연계를 통한 센터 프로그램 및 공동 기관 이용안내
신 문 구 독 지 원 센 터	자녀 학습지원	5세 이상 10세 이하 아동	4월~12월 (주 1회)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 방문학습 및 교사 연계로 한글과 국어 학습 지원
	신문구독지원	다문화가족 및 유관기관	1월~12월 (매월 2회)	월 2회 다문화 신문 제공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5월 11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

안양시의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한국어가 중급 이상 수준이며, 입국한지 5년 이상이 지난 안양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9인(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양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초기결혼이민자 및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해 센터에 연계하거나, 초기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워하는 생활지원(행정관서, 병원, 은행,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이나 은행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

고 신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경기도와 안양시의 특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센터 관계자는 “관내로 전입하는 결혼이민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기존 결혼이민자 가운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 면에서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으로 가족관계나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서포터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모든 가정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구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안양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안녕한 안양’

안양시장 등 23개 단체장 고용안정화 힘 모아 공동선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기관단체장들이 힘을 모은다. 안양시는 12일 ‘일자리 안녕한 안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이상호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갑 IBK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장, 박기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등 7명과 각 기업체·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23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 서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은 사회전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일자리가 안녕한 안양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함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공동선언의 취지다.

선언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때이지만 일할 기회가 있어야 삶에 희망이 있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시기는 경제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현 시기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수도요금 50%감면 등의 시책도 추진 중이다.

이지은 기자

2020년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 공모전, 다문화가정 초등생도~



안양시 동안구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

어려서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함양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개학 중인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려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공모전인 만큼 지구온난화, 폐기물 감량, 하천생태계, 아름다운 자연 등을 주제로 한다. 심사를 통해 그림·글짓기 대상(시장상) 4명, 최우수상 등 46명을 선정한다. 그림은 4절지 또는 8절지 도화지로, 글짓기는 200자원고지 10매 이내로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우편(동안구 동안로 158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방문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수상작에 대해서는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세부 일정과 참가방법은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전화 031-8045-4331)로 문의하면 된다.

박의순 동안구청장은 코로나 사태로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며, 공모전에 초등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국악체험날짜 “득드침” 참여자 모집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동아리모임 지원을 통해 자이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와 문화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해결을 통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 간 : 2020.06.09.~2020.11.30.(총 20회)

매 주 화요일 19:00~21:00(2시간)

장 소 : 센터 3층 강의실

내 용 : 난타 배우기 및 공연

대상자 : 안양시 거주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10명)

참가비 : 15,000원

접 수 : 센터 방문 접수 및 전화(031)8045-5706



2020.3.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3.24.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폐기물 봉투, 길아입을 옷

2020.3.24.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2020.3.24.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닦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2020.3.24.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홈페이지 소독침울용)

2020.3.24.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사야염수산니느름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 찬물990ml(1,000ml)까지 차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어려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뒤에서 소독해주세요!

2020.3.24.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2020.3.2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나온 집단사회-디중이감시설소독안내하고 코로나19증거자체에서 최선

조광희 도의원, 안양상담소에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조광희(더민주·안양5)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평가원장 서용재,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7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가장 높고 입시위주의 문화와 학업스트레스 못지않게, 점점 더해가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양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우리 교육의 병폐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양시,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과정 참여자 40명 모집. 29일까지 접수

안양시가 사회적경제 창업과정을 개설, 창업에 대한 지식 전수에 나선다.

‘스마트안양 사회적경제 창업’을 주제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중장년층,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면 해당된다. 여성가장(전 연령층) 및 2인 이상 팀을 이루면 우선 선발대상이다.

안양시는 교육생 40여명을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이메일(ad@socialdream.c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월·수요일 주 2회(19:00~22:00) 총 45시간에 걸쳐 열린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수산동 2층)가 교육장소로 쓰인다.

▲사회적경제 기초+심화 필수교육 ▲소셜 비즈니스 모델설계 방법론 ▲사회적경제 창업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코칭 및 컨설팅 등이 과정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창업과 관련한 자체 모의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과정을 무사히 마친 교육생에 대해 수료증이 수여되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우대, 시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과 육성사업 등의 멘토링 및 참가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031-8045-2337

이지은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가구에 먼저 지급

화성시 다문화가족 등 4인 가구 총 207만1천원 받아



화성시가 지난 4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생계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 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20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립도서관, 12일부터 대출 반납서비스 재개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12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이후 3개월 만이다.

화성시는 중앙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체제 전환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자료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자료실 내 도서 열람은 불가하다.

개인 학습이 가능한 열람실 개방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국가위기단계가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일부 좌석 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또 시는 도서관 별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방문대장 작성,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으로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료실은 매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씩 소독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도서관 전체를 소독할 방침이다. 김경은 화성시 평생학습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힘쓸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政府災難支援金、多文化家族と永住權者も含む。低所得層は4日から支給、それ以外は11日から申請、13日から使用

政府の緊急災難支援金が5月4日から脆弱階層280万世帯に支給される。以後、多文化家族と永住權者などを含む全國民を對象に順次支給される予定だ。これにともない約280万世帯の低所得階層は4日に現金を受領、現金支給對象ではない一般世帯は、早ければ5月13日から緊急災難支援金を支給される。

-申請はいつ、どこで？

オンラインと訪問申請の両方が可能。オンラインで申請すると早めに使用が可能だ。緊急災難支援金をどのような方式で受け取るかをまず決める。脆弱階層ではない世帯は信用・チェックカードポイント、地域サラン商品券、地方自治團體が配布するプリペイドカードのうちから選択する。信用・チェックカードポイントでの支給を望む場合、各カード社のホームページで5月11日から申請。ポイントは申請から二日後に支給される。早ければ5月13日から使用可能だ。プリペイドカードや地域サラン商品券での支給を望む場合、邑面洞住民センターに申請すればすぐに受け取れる。訪問申請は5月18日からだ。

-信用・チェックカードポイントでの支給を望むがモバイルアプリが不便。

各カード社と連繋する銀行を訪問、申請すればよい。銀行訪問申請も5月18日から始まる。

-脆弱階層はもっと早く支給可能だと聞いているが？

基礎生計給與、基礎年金、障がい者年金を受けている270万世帯は別途申請する必要はない。5月4日福祉給與を受ける口座に現金支給される。該当世帯には自治体から緊急災難支援金が支給されたという案内文が發送される予定だ。

-多文化家族も支給対象？

京畿道の基準と同様に多文化家族と永住權者などの外國人も支給される。ただし外國人労動者と留學生などが含まれておらず残念だ。

-京畿道に暮す4人家族。家族で8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のだがまた支給されるのか？

京畿道では世帯所得に關係なく政府の災難支援金が87万ウォンへと變更された。

当初4人家族基準、水原市と龍仁市の支給計画案は、180万ウォンだったが、實受領額167万1700ウォンと變更、抱川市の支給計画は300万ウォンであったが實受領額287万1700ウォン、ウィwner市は160万ウォンから147万1700ウォンへと變更。この金額は政府災難支援金と京畿道災難基本所得、そして基礎地方自治團體の災難支援金をすべて合わせた金額だ。したがって龍仁市に暮す4人家族が4月に80万ウォンを支給されたのならば、5月にはその残りの87万1700ウォンが追加支給される。

-住民登録上は両親と一緒に暮らしてい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就職して別途家計で健康保険料も別に払っている。そう

なると2人世帯?3人世帯?

‘緊急災難支援金.kr’ホームページで確認できる。4日にオープンし照會も可能。このサイトでは世帯分類および金額照會のみが可能だ。支援金申請はカード社や銀行、邑面洞住民センターで行う。

-支援金は家族のうちの誰に支給されるのか？

世帯主に支給されるのが原則だ。カード社に申請する時に世帯主のカードで申請せねばならない。ただし邑面洞住民センターなど、現場訪問は代理人でも可能だ。

-現場受付けが集中しないか？

支給手段とは關係なく、すべて의緊急災難支援金申請・受付は施行初期’マスク5部制’と同じように、出生年度最後の数字にしたがう申請曜日制を適用する。ただし信用・チェックカードオンライン申請は16일から申請曜日制がなくなる。世帯人數を照會することができる、ホームページ上の緊急災難支援金照會サービスも曜日制となっている。

-申請しないとどうなるのか？

今回國會を通過した特別法にしたがって申請開始日から3ヶ月間に申請しないと、寄附金とみなされ雇用保険基金となる。5月4日、11日、18日のうちいつからを基準に3ヶ月とするか、まだ決っていないが、行安部が近々發表する。

<한글 기사 32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자해하던 아이, 무너지는 엄마의 삶 “센터의 상담이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했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변화 이룬 다문화가족의 소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동네 벽ママ, 사례관리,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자녀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이 모두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문화가정의 건강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이용자들이 밝힌 소감을 들어봤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한 제주도 캠프

-사례관리 이용자 최 모 씨(46, 사진1)

한국 와서 돈을 버느라 10년이나 아이와 헤어져 지냈던 공백 때문인지 우리 가족은 감정소통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심하게 자해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창가로 달려가는, 죽도록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엄마로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 가족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9년 11월에 주최했던 ‘뭉쳐야 뛴다’ 제주도 1박2일 캠프는 우리 가족을 더욱 더 단단해지게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난 여행이 제일 좋았던 추억이라고 하네요. 많은 다문화가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 같은 위로와 사랑을 주는 센터

-취업기초교육 참여자, 김티티폰 씨(사진2)

저는 2017년부터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았고, 그 덕분에 한국어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늘 제가 수강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특히 작년에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취업교육이 개설되어서 저는 고민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전부터 내가 자라온 태국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막상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쉽지 않지만 다문화이해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이현주 센터장님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센터장님은 항상 센터를 ‘친정’처럼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해주시는데 참 좋아요.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예의, 우애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저를 기대해주세요.

주거부터 병원치료, 캠프까지 ‘가장 좋 은 센터’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참여자, 김그레 이실(모, 44, 사진3은 김 씨의 자녀)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내준 제주도 여행 데에 딸과 온전히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대부도 캠프는 어머니(지희 할머니)와 손녀가 손 잡고 유리섬 구경도 하고 포도 따기체험을 할 수 있어서 어머니(지희 할머니) 기억에 가장 기쁘게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을 신청부터 들어오기까지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애써주셔서 이제는 혼자 병원도 다니며 열심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꼭 필요한 노트북을 설치해 주셔서 귀화준비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활동적이고 밝은 딸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도 항상 연락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센터에서 갔던 에버랜드, 캠핑, 캐리비안베이가 가장 좋았고 옷 염색하기 체험에서 만든 옷은 딸이 여름에 가장 즐겨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의 힘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참여자, 김범석 (사진4, 범석 군이 그린 그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받았던 상담을 통해 무엇이 저를 불안하게 하는

지 그리고 저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미술치료로 제 안에 있었던 고민과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또한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고민해주셔서 좀 더 편안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해결 후 불안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뒤로 많은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겨서 요즘도 집에서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또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주시는 물품들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석 학생의 경우 화성시 우정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하루 종 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주거지역 인근에 교육문화 및 복지시설이 없어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가정에 2018년 지역 돌봄 서비스인 ‘우리동네, 벽ママ’ 사업을 기점으로 2019년 ‘자녀미술치료 아이유’ 및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해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했다.

센타 관계자는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김범석 군이 대견하다”며 “센타 직원들이 이 많은 일을 하기에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함께 조심해요! 급식 에티켓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영양사협회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 10가지

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
01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 우선 사용  이동전화(LTE, 5G 등)보다는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원격수업 진행	02 영상 회의방 보안강화  권한없는 사람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 학급방 비밀번호 설정 ▲ 링크 비공개 ▲ 초대자만 입장 가능
03 학습사이트 로그인(log-in)은 미리미리!  e학습터 등 로그인이 안되면 잠시후 재시도! * 로그인이 계속 안될 경우 빤드나 카카오톡 이용해 출석체크 하기	04 안전한 프로그램 사용하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앱) 사용 자제 또는 보안폐치 후 사용
05 수업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06 백신설치하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백신 다운로드 * (예) software.naver.com - pc관리/보안 - 백신
07 수업 영상자료는 SD급 이하로 제작!  SD급 화질 : 480p(720x480) 화질	08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URL 링크는 열람하지 않고 삭제
09 자료는 전날 17시 이후 업/다운로드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업/다운로드	10 개인정보 보호하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 사진촬영 및 외부배포 금지 공용 PC, 스마트기기 사용 후 개인정보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이태원 클럽 방문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안내

- 4. 24. ~ 5. 6.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헌금 및 음료수 판매를 위한 헌금통장을 헌금통장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Tù ngày 24. 4 ~ 6. 5 những người đã đến hộp đêm ở Itaewon Seoul hãy hạn chế ra ngoài và kể cả có hoặc không có triệu chứng đều có thể được kiểm tra xem có bị nhiễm Virut Corona hay không nên hãy tư vấn với 1339 hoặc sở y tế.(tất cả đều được kiểm tra miễn phí không phân biệt quốc tịch hoặc tư cách cư trú)
- Лица, посещавшие клубы на Итэвоне в Сеуле с 24 апреля по 6 мая, должны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выходов на улицу 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симптомов, могут пройти проверку на вирус, для чего просим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по номеру 1339 или в медпункте/погонс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ражданства 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проверка бесплатная)



이태원 클럽 방문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안내

- 4. 24. ~ 5. 6.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Itaewon area nightclub visitors from 24 April to 6 May are strongly recommended to stay at home. Do reach your nearest public healthcare centre (Bogeon-so) or call 1339 to get tested regardless of showing symptoms. Testing is available to all foreign residents and irregular residents at no cost.
- 2020年4月24日到5月6日之间到访过首尔市龙山区梨泰院地区夜店的人员尽可能不要外出，无论是否出现新冠相关症状，均可接受病毒检测，请致电1339或者前往就近保健所咨询。
(无论国籍、滞留资格，均不收费)



政府救灾资金，多元文化家庭和永久居民也包括在内。

从5月4日起，政府的紧急救灾资金将支付给280万低收入家庭。随后，预计将按顺序向包括多元文化家庭和永久居民在内的所有公民支付费用。结果，大约有280万低收入家庭可以在4日获得现金，而没有现金支付资格的普通家庭将在5月13日获得紧急支援。

-何时何地申请？

在线和访问应用程序均可用。在线申请即可快速获得。您必须决定从哪种类型的紧急资金中获取。不是低收入的家庭可以选择信用卡和支票卡，当地爱情礼品券或地方政府发行的预付卡。要获得信用卡和支票卡积分，您可以从5月11日起在每个卡公司网站上申请。积分在申请后两天支付。5月13日是最早的可用日期。如果您想获得预付卡或本地爱心礼物证书，可以通过向邑面洞社区服务中心申请立即获得。参观申请从5月18日开始。

-我想获得信用卡和支票卡积分，但是我对使用移动应用程序并不熟悉。

您可以通过访问与每个卡公司关联的银行进行申请。银行访问也将于5月18日开始。

-低收入家庭可以更快的申请吗？

不需要申请270万个家庭的基本生活，基本养老金和残疾养老金。以现金付款至在5月4日收到福利的帐户。该家庭计划向当地政府发出通知，告知已支付了紧急资金。

-是否可以接待多元文化家庭？

是的按照京畿道的标准，也可以接受多元文化家庭和永久居民等外国人。但是，遗憾的是没有包括外国工人和国际学生。

-住在京畿道的一家四口。我的家人获得了80万韩元，我能再得到吗？

在京畿道，无论家庭收入如何，政府的救灾资金已更改为87万韩元。

-最初，以四口之家为基础，水原市

和龙仁市的付款计划为180万韩元，但房地产的付款计划更改为167万1700韩元，抱川市的付款计划为300万韩元，但实际金额为287,1700韩元，义王市从160万韩元更改为1,147,700韩元。该金额是政府的救灾资金，京畿道的基本救灾收入以及其所居住的基本地方政府的救灾资金的总和。因此，如果一个住在龙仁市的四口之家在四月份获得了800,000韩元，那么他们其余的人将在5月获得另外的87,700韩元。

-根据居民登记，您应该与父母住在一起，但是您被雇用分别管理资金和分别支付健康保险。我的房子是2还是3？

您可以通过访问“Eastergency Disaster Support Fund.kr”网站进行检查。预定于下个月4日开放，也可以从这个时间开始查询。在这个网站上，只能进行家庭分类和金额查询，必须在信用卡公司，银行或邑面洞社区服务中心申请补助金。

-提供给家庭的哪个人？

原则上，它是支付给户主的。向信用卡公司申请时，必须使用户主卡。但是，可以委托平邑面洞社区服务中心进行现场访问。

-现场接待会不会爆炸？

无论采用何种支付方式，所有应急救灾资金的申请和接收都与申请之初的“面具5子系统”相同。但是，在线信用卡和支票卡申请将于16日取消。日常系统还应用于紧急灾难援助查询服务，该服务从第四个主页开始，以便可以查看家庭成员的数量。

-如果不申请怎么办？

根据这次国会通过的特别法，如果您自申请之日起3个月内没有申请，它将被视为捐赠，并将进入就业保险基金。<한글 기사 32면>

왕그나 기자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분창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종아오 1만개!



May 12, 2020 - Tuesday 11AM
Online Emergency Briefing



Itaewon Club Cluster Infection Administrative Order Revision

■ Date revised for individual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ests : April 29 → April 24

The revision was made by analyzing the date of the first confirmed patient, timing of the patient's symptoms and opening hours of the clubs.

■ COVID-19 tests and contact prohibition orders for visitors to Itaewon clubs and Nonhyun-dong sleeping room

Subjects : Individuals who visited any of 6 clubs* in Itaewon-dong, Yongsan-gu, or the Black Sleeping Room in Nonhyun-dong, Gangnam-gu, after April 24 who live, reside, work in or have other connections to Gyeonggi Province

*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 Free testing provided to Gyeonggi residents who have visited the Itaewon / Nonhyun areas since April 24, even if the above clubs or sleeping room were not visited

* Infection Test : May 11 (Monday) - May 17 (Sunday)

Public Health Centers and Screening Clinics in Gyeonggi Province

* Free COVID-19 tests available (no obligation to reveal whether you were in the Itaewon clubs)

Gyeonggi-do Call center 031-120



2020年 5月12日 (周二) 11:00

紧急在线新闻发布会



《关于针对梨泰院夜店群聚感染行政命令变更的通知》

■ 将感染检测行政命令对象的适用时间点从4月29日更改为4月24日。

- 就最初患者和确认者出现症状的日期、
相关夜店开始营业的日期进行分析之后，变更适用时间点。

■ 关于对梨泰院夜店·论岘洞睡眠房出入者进行新冠肺炎检测·禁止与他人接触的命令

- 对象 : 4月24日以后出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6个地点*，江南区论岘洞黑色睡眠房的人员当中，在京畿道居住，有居处，工作或因其他事由停留的相关人员

* 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

- 同时针对未出入上述夜店和睡眠房，但在4月24日后访问过梨泰院·论岘洞的京畿道民众实施免费检测

* 感染检测 : 5.11(周一) ~ 5.17(周日) / 京畿道内保健所和筛选诊疗所

* 任何人在不公开是否出入过相关夜店的情况下，都可以免费接受检测

京畿道呼叫中心 031-120



2020. 5.12. (화) 11:00

온라인 긴급 브리핑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 변경 발령]

■ 감염검사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시점을 4월 29일 → 4월 24일로 변경

- 최초 환자와 확진자 증상 발현일, 해당 클럽 영업개시일 분석해 적용시점 변경

■ 이태원 클럽·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대상 코로나19 감염검사·대안접촉 금지 명령

- 대상 : 4.24.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6곳*,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 킹클럽 (KING CLUB), 퀸 (QUEEN), 트렁크 (Trunk), 더파운틴 (THE FOUNTAIN), 소호 (SOHO), 힐 (H.I.M)

- 상기 클럽·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4.24. 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 경기도민도 무료 검사 실시

* 감염검사 기간 : 5.11.(월) ~ 5.17.(일) / 경기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 해당 클럽 등 출입여부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 검사 가능

경기도콜센터 031-120



5월,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희망 선물

K-water 화성권관리단, 화성다가에 돌봄사업 성금 전달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 화성다가)는 지난 5월 8일,

K-water 화성권관리단(단장 정재안)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 돌봄사업(우리동네, 빅마마)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성금(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날 전달된 성금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한 식료품을 비롯해 아동이 좋아하는 간식 꾸러미를 만들에 20여 가정에 전달했다.

K-water 화성권관리단은 지난해 7월 26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을 체결한 이래,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사업(우리동네, 빅마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사업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빅마마 활동가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학습, 기본생활습관 지도, 놀이,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정서지원 사업이다.

이현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K-water 화성권관리단 직원들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한다”며 “다문화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이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함께 나눠요 나눔냉장고 화성시 '남양행복플러스'

화성시는 지역주민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돌봄 및 나눔 기부문화 정착 도모하기 위해 나눔 냉장고 '남양 행복플러스' 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사 내 냉장고를 설치해 지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먹거리를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기부식품을 가져감으로써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독거노인, 저소득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으로 식재료, 채소, 과일, 통조림, 간식류, 가공식품,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물품출고대장에 인적사항 기입 후 한번에 1~2개씩 이용하면 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남양읍장은 “남양행복플러스는 이웃을 위한 소통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이다. ‘남양나눔플러스’와 더불어 남양의 대표적인 지역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С 1 июня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МЖ начнут выплаты основн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ёнгидо. Кёнгидо: выпла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карту, на которую были получены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Кёнгидо, 6 мая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 1 июня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МЖ основн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чрезвычайно обстановки.

Выпла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МЖ,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до 00:00ч 4 мая 2020 года, примерное число достигает 100.000 человек.

Иммигранты, вступившие в брак, к оторые не получили гражданство,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брак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ок с 1 июня по 31 июля, вы можете посет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очкой иностранца и формой заявления.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ы на ту же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на кото-

рую были начислены 1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Поскольк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о иностранцах, заявку нельзя будет подать в филиалах банка Нонгхёп.

Так же как и в Кёнгидо, в новых районах готовы выплатить базовый доход в период чрезвычайной обстановки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иностранцам на ПМЖ. Возможно суммированные выплаты от Кёнгидо и от рай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ерио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о 31 августа 2020 г.), усло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акие же, как и для карты предоплаты дл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помощи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финансовы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по Кёнгидо.

Ранее Кёнгидо исключало иностранцев от выплат, позже 20 апреля согласно за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й-мигрантов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в-

енства и семь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б о существлении выплат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МЖ по Кёнгидо.

В области посчитали, что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скорее всего связаны с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и в будущем приобретут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станут постоянными жителями, и что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также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ддержк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оддержк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Ранее совет Кёнгидо провёл 29-го числа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и принял «Поправку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о выплат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чрезвычайных событий в Кёнгидо»,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в области получить основной доход в Кёнгидо.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19 апреля через Службу социальных связей (SNS) сказал: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эта проблема вызывала разногласия, но, поскольку выплаты основн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чрезвычайной обстановки является неотложным вопросом, требующим скорейшего решения мы не могли более отложить из-за подробного анализа и противоречий.»

Он добавил: «Мы подготовим юрид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такие как просмотр постановлений каждого города и округа в Кёнгидо, обслуживание системы, и завершение целевого показателя, а затем,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период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общую сум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ил основной доход для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한글 기사 2면〉

장을가 기자